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2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연 · 김인순 · 박지영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 수 연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인 순 (본원 전문연구원)

박 지 영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어린이집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여성들에게 문화활동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국민소득이 늘고 국가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여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연구는 문화시설을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높이하고자 하는 거시적 목적 하에 이번에는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 공연시설의 조사결과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기관에서 보육편의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또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연시설이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어떠한 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아동 안전 등 그 외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제약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의 방안도 마련해보았습니다.

어린 아동을 키우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시설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예산에 비해 대단히 효과적인 문화인프라 구축 작업입니다. 많은 공연시설에서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협조해주신 전국 공연시설 관계자 분과 연구에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연구자들에게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여성친화적인 문화시설 조성방안의 화두로서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차후 보다 많은 공연기관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1)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의 개념적 논의
- 2) 전국 공연시설 보육편의시설 운영 현황 및 설치 장애요인
- 3)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방안 개발

3. 연구방법

- 가. 원자료 분석: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분석
- 나. 설문조사: 전국 732개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2010년 7월 12일 - 8월 15일 사이에 조사
- 다. 심층면접: 설문조사 대상기관 중 보육편의시설 설치기관과 미설치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해 2010년 8월 15일 - 8월 30일(15일간)에 실시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보육전문가 및 공연예술단체 관련자대상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4. 개념적 정의

-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이라 함은 여성이 문화생산이나 소비를 하는데 장애를 없애고 편의성을 높인 공연, 전시, 문화, 교육/경험의 장을 말함
-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이란 여성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와 문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에 있어 보다 여성에게 친근한 시설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함
- 보육편의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보육시설은 아니면서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편의를 위해 동반 아동을 돌보아주는 시설을 말함

5. 기대효과

- 여성친화적인 문화시설 조성은 동시에 가족친화적인 시설로 작용하여 남성의 문화향수욕구증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여성이 출산, 육아기간 동안에도 문화향수욕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게 해줌으로써,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일부 요인을 제거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임

6. 실태조사결과

가. 보육편의시설 운영하는 공연시설의 현황 및 특성

- ① 총 209개소 30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은 14.4%에 불과
- ② 보육편의시설 운영계기는 시설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가 가장 많아 기관장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③ 운영형태는 수시운영이 많음
- ④ 이용 아동 연령은 대부분 취학 전 3세~7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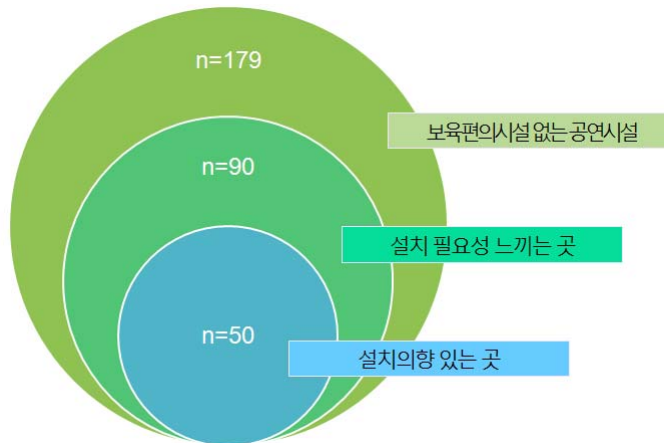
- ⑤ 보육교사는 1명~2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⑥ 제공하는 보육내용은 단순 돌봄 기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6개 기관임
- ⑦ 보육교사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임

나.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람만족도, 문화행사참가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①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의 존재가 관람만족도와 문화행사참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 사고는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연시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 ② 현재는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지 않지만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의향이 있는 공연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보육편의시설이 관람만족도와 관객참가율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함

다. 조사 결과 시사점

- ① 현재보다 훨씬 많은 보육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②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공연장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관객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여 이의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③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공연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일부는 설치할 의향이 있음



[그림 1] 보육편의시설이 없는 공연시설 중 설치 필요성과 설치 의향이 있는 시설의 비중

- ④ 보육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의 장애요인은 공간이나 재원 확보, 전반적인 관리와 교사 수급이 어렵기 때문임
- ⑤ 재원확보는 보육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육예산을 추가로 받는 방법이 있음 (예산확보방안 참조)
- ⑥ 교사 수급은 한국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음

7.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방안 제안

가. 설치·운영 모델

1) 돌봄내용과 운영시간별

보육편의시설의 유형은 돌봄의 내용별, 운영시간별로 상시 놀이방 모델, 수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델, 상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4가지 기본 모델이 가능함(<표 1>).

〈표 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모델

모델	세부유형	설치 요건	연간 예산	필요 교사 수
놀이방 모델	수시	- 공연 횟수: 주 평균 2회(4시간)이상 - 이용 아동 수: 1회 평균 5명 이상	1,000만원 ~ 5,000만원	1~5명
	상시	- 공연 횟수: 월 30회 이상 - 공연 외 관람시설, 문화교육시설 있는 복합 문화시설	2,500만원 이상	2명 이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	수시	- 공연 횟수: 주 평균 2회 이상 - 이용 아동 수: 1회 최소 7~8명	2,000만원 이상	2명 이상
	상시	- 공연 횟수와 관계없이 구민(시민)회관 또는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시설로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사지원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곳	2,000만원 이상	2명 이상

2) 예산 조달 방법별

4가지 모델 유형은 예산 조달방식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 유료형, 자체예산사용형, 전액 국가보조형,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유료형은 한번 이용에 5천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주 평균 공연 2회, 그리고 한 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8명 이상이면 가능함. 일본의 경우 많은 공연시설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2세 미만은 2천엔, 2세 이상은 1천엔을 받고 있음
- 자체예산사용형은 규모가 크고 공연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민영, 법인, 혹은 공공 공연시설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예술의 전당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액 국가보조형은 자체 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육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임. 지방의 소도시, 군 단위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관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연회수가 많거나 주 관객층이 보육시설이 필요한 연령층일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원봉사자 활용형은 공연회수가 많지 않은 공연시설에서 상시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보육편의시설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자의 수급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지역보육교사협회, 혹은 지역의 여성단체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능함

나. 설치·운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각 공연시설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보육편의시설 유형이 파악되면 시설 설치를 위한 기관의 의사결정 및 예산확보 등 절차를 밟아야 함. 설립주체, 운영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표 2>).

〈표 2〉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고객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편의시설 설치 결정에 참고 자료로 이용 - 조사 결과 수요가 많은 경우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이용
홍보전락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편의시설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시설의 원만한 운영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조건을 알림으로써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함
아동 안전보호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함 - 아동의 보호자와 비상시 연락망을 확보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비 보험을 준비
예약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을 장려하는 시스템 마련 - 공연표 예매시 예약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 고려

다. 국가지원방안

1) ‘공연법’에 보육편의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공연장 내 보육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됨. 공연장의 보육편의시설은 공연관련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공연법(1999.2 제정) 제3조 3항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과 공연장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할 수 있음. 또한 문화교육시설과 같이 운영되는 복합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한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할 수 있음(제3장 12조 조항④)

2) 선택적인 예산지원 방식 채택

일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시설유형, 지역의 성격, 공연 회수, 관객 수 등에 따른 선택적, 차등적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 1)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지원
- 2) 보육편의시설 설치 공간이 있고 공연 횟수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함
- 3) 사설기관인 경우 국가지원예산규모에 상응하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
- 4) 시설 규모보다는 시설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 즉, 아동을 동반할 만한 젊은 여성들이나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한 외진 곳에 있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도 우선 지원
- 5) 공공기관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관객층이 두꺼운 곳은 부분 유료화를 시도할 필요
- 6) 시설설치비 지원은 잠재관객층이 두터운 곳을 우선
- 7)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공연회수가 일주일에 일정 횟수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고 한 달에 5회 이하인 곳은 인건비보다는 보육교사 파견을 지원

3) 문화예술강사 지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전문예술강사 파견지원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전액 국가예산 지원사업인 예술강사지원사업 중 사회교육지원 대상 시설에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을 포함시키고 현재 1기관 1인 파견,

1일 2시간, 연간 30회 기준을 상시운영 시설을 위해서는 상향조정하고 공연 때만 운영하는 수시운영시설유형에서는 1인 1기관 파견을 1인 몇 개 인근기관으로 완화시키고, 교육대상도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속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단위프로그램 중심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요청됨

4) 교육지원

- 기존에 실시중인 공연시설 관계자대상 교육에 “고객친화적 마인드 조성”을 키워드로 하여 보육편의시설조성의 필요성 인식 및 구체화전략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 동시에 기관장의 의지가 관건일 정도로 기관장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므로, 바쁜 기관장의 시간스케줄을 고려하여 별도교육보다는 기관장들의 모임을 활용하여 공연시설에 고객친화적, 여성친화적, 가족친화적인 마인드 도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교육 제공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가.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의 개념적 논의	4
나. 전국 공연시설 보육편의시설 운영 현황 및 장애요인	4
다.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방안 개발	4
3. 연구방법	5
가. 원자료 분석	5
나. 설문조사	5
다. 심층면접	5
라. 전문가 자문회의	5
4.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점	6
II. 개념적 논의	7
1.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9
2. 공연시설 내 보육 편의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	11
III.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15
1. 조사개요	17
가. 조사의 내용과 목적	17
나. 조사방법 및 일정	17
2. 설문조사 결과	19
가. 조사대상기관의 특성	19
나. 공연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운영 현황	22

다. 보육편의시설 설치 의향과 가능성	31
라. 설문조사 요약	44
3. 심층면접 결과	48
가.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	48
나. 보육편의시설 운영의 애로점	51
다. 모범 사례	54
4. 소결	58
IV.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방안	61
1. 보육편의시설 모델	63
가. 놀이방 모델	64
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	68
2. 예산 조달 방법	72
가. 유료형	73
나. 자체 예산 사용형	75
다. 전액 국가보조형	76
라. 자원봉사자 활용형	76
3. 보육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78
가. 의사결정을 위한 고객수요조사	78
나. 홍보전략	79
다. 예약시스템 도입	80
라. 아동의 안전	80
4.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내용	81
가. 보육편의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 조성	82
나. 예산 지원	84
다.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 지원	84
라. 교육	85

■ 참고문헌	87
■ 부 록	89
<부록 1> 설문지	91
<부록 2> 공연법	97
■ Abstract	109

표 목 차

<표 III-1>	심층면접 대상 공연시설 명단	18
<표 III-2>	조사대상기관의 객석규모별 구성	19
<표 III-3>	전국 공연시설의 객석규모별 비율	19
<표 III-4>	조사대상기관의 지역별 구성	20
<표 III-5>	조사대상기관의 설립주체별 구성	20
<표 III-6>	조사대상기관의 운영주체별 구성	21
<표 III-7>	조사대상기관의 설립연도	21
<표 III-8>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22
<표 III-9>	설립·운영주체별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23
<표 III-10>	지역별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24
<표 III-11>	보육편의시설 설치기관의 설립연도	24
<표 III-12>	보육편의시설 운영 계기	25
<표 III-13>	보육편의시설 운영 형태	26
<표 III-14>	시설 내 보육실 수	26
<표 III-15>	시설이용 아동의 연령대	27
<표 III-16>	보육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내용	27
<표 III-17>	보육편의시설의 보육교사 수	28
<표 III-18>	보육편의시설 보육교사의 고용형태	28
<표 III-19>	보육편의시설 보육교사의 임금형태	29
<표 III-20>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9
<표 III-21>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에 따른 보육편의시설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30
<표 III-22>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30
<표 III-23>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별 보육편의시설이 문화행사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31

<표 III-24> 보육편의시설 없는 공연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필요성 인식 여부	31
<표 III-25>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연시설의 객석규모별 특성 ..	32
<표 III-26>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연시설의 설립주체별 특성 ..	32
<표 III-27>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연시설의 위치	32
<표 III-28> 보육편의시설 불필요 이유	33
<표 III-29>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불필요 이유	34
<표 III-30> 설립주체별 보육편의시설 필요 없다는 기관의 불필요 이유	34
<표 III-31>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35
<표 III-32>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35
<표 III-33> 설립주체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36
<표 III-34> 설립주체와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36
<표 III-35>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있다는 공연시설의 설치공간 유무	37
<표 III-36> 설치의향이 있다는 기관의 설립주체별 설치공간 유무	37
<표 III-37>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있다는 기관의 예상되는 운영형태	37
<표 III-38> 설립주체별 예상되는 운영형태	38
<표 III-39> 설치 의향이 있는 공연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설치 장애요인	38
<표 III-40> 보육편의시설 필요성 인식여부별 시설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차이	40
<표 III-41> 보육편의시설 필요성 인식여부별 시설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41
<표 III-42>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여부별 시설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41
<표 III-43>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여부별 시설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42
<표 III-44>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요인	42
<표 III-45>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요인	43
<표 III-46> 보육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부지원	43
<표 III-47>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부지원	44

<표 III-48> 유아누리놀이방 8월 세부일정	55
<표 IV-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모델	64
<표 IV-2> 수시 놀이방 모델의 사례	66
<표 IV-3> 상시 놀이방 모델의 사례	68
<표 IV-4> 수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사례	70
<표 IV-5> 일본 공연시설 보육료 안내	73

그림 목 차

[그림 II-1] 기혼남녀의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욕구의 변화	10
[그림 II-2]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문화공연 직접관람도	13
[그림 III-1]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22
[그림 III-2]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39
[그림 III-3]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40
[그림 IV-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	7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점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문화시설은 문화복지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 다다르면서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향유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화시설을 통한 직접적인 문화 관람과 활동은 집중도와 성취감이 높아 문화향유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문화시설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유시간이나 소득 등 변인이 모두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우리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현실이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우리의 문화정책이 문화복지에 방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화시설이 건립되었다. 특히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문화시설은 늘어났으나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은 이와 비례하여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시설 자체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문화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은 주민의 연령, 성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은 달라진다. 최근 문화향수에 있어 성별요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삶의 조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같은 인프라의 구성과 운영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따라서 여성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을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이란 문화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여성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문화시설은 공연, 전시, 교육 등을 포함하는 대단히 넓은 범주이어서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의 조성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본 연구보다 광범위 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는 여성친화적인 문화시설 조성방안의 화두로서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 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보육편의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보육시설은 아니면서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편의를 위해 동반 아동을 돌보아주는 시설을 말한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은 문화 활동, 특히 공

연장을 통한 문화향수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활동반경의 제한은 현재 국가적 위기로 간주되는 저출산 현상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이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수록 출산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공연시설 내에 보육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미 보육편의시설을 갖춘 공연장도 적지 않다. 반면에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원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연시설의 상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차후 보다 많은 공연기관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의 개념적 논의

여성에게 있어 문화향수의 의미,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의 필요성과 내용, 그리고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나. 전국 공연시설 보육편의시설 운영 현황 및 장애요인

2008년 조사된 전국 732개 공연시설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9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설의 특성, 보육편의시설 운영현황, 보육편의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한다.

다.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방안 개발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대로 더 많은 공연시

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공연시설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보육편의시설의 모델을 제시하고 공연시설이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단계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향을 논한다.

3. 연구방법

가. 원자료 분석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 설문조사

- 1) 대상: 전국 732개 공연시설
- 2) 일시: 2010년 7월 12일 - 8월 15일
- 3) 방법: 2009년 전국공연예술실태조사에 수록된 공연시설에 설문지를 팩스로 발송하여 팩스로 회신하도록 하였다.

다. 심층면접

- 1)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연시설 중 보육편의시설 예산, 운영 일정, 프로그램, 장애요인 등에서 심층적 정보를 줄 수 있는 기관 22곳을 선정하여 면접 조사를 하였다.
- 2) 일시: 2010년 8월 15일 - 30일

라. 전문가 자문회의

보육전문가 및 공연예술단체 관련자가 참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4.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점

전국 공연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육편의시설 설치, 운영 방안을 개발하여 공연시설의 운영이 보다 여성과 가족친화적이 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단, 설문조사는 73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회수율이 높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전국공연시설 현황을 보면 객석 500개 이하의 비율이 본 조사의 샘플보다 더 높아 본 조사에서는 큰 규모의 공연시설이 과표집 된 것을 알 수 있다.

Ⅱ

개념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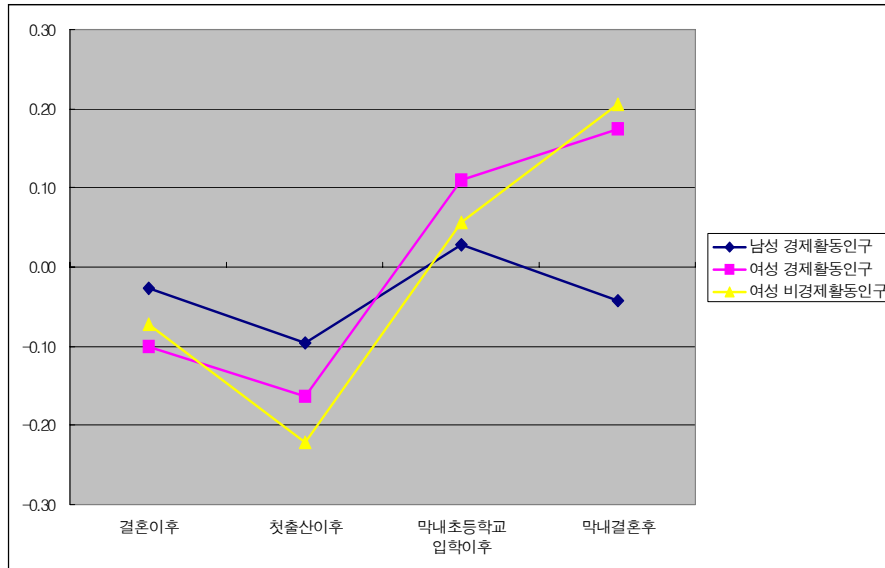
- | | |
|---------------------------------|----|
| 1.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 9 |
| 2. 공연시설 내 보육 편의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 | 11 |

1.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공연, 전시, 문화교육/경험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미술관, 박물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문화의 집, 전용공연장, 주민자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시설은 1990년대 이래 문화복지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으로 인한 건립비 지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합쳐 1,741곳이다(보건복지부, 2010).

문화시설의 이용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문화 활동에 대해 욕구가 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이수연 외, 2005). 예를 들어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통한 문화행사관람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또한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이용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여성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구나 여성은 단순히 문화 활동을 많이 할 뿐 아니라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도 크다. 여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잠재성은 여성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참여 여부, 여가시간, 소득, 그리고 생애주기 등 많은 변수가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의 문화 활동이 이러한 변수들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여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문화 관람이나 문화 교육, 문화예술창작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활동비참여 여성은 참여 여성보다 문화 활동이 훨씬 왕성하다. 또한 소득의 증가도 여성의 문화행사관람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여성들의 문화욕구는 육아의 부담이 늘어나는 첫 출산 이후 감소하였다가 집중적 육아에서 해방되는 막내 초등학교 입학 이후는 급격히 늘어나며 막내결혼 후에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그림 II-1>). 이는 여성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결혼, 출산, 육아 같은 성역할 수행 때문에 욕구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이나 여가시간 같은 조건이 개선되면 여성의 문화 활동참여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1] 기혼남녀의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욕구의 변화(이수연 외, 2005, 123)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이란 여성이 문화생산이나 소비를 하는데 장애를 없애고 편의성을 높인 공연, 전시, 문화, 교육/경험의 장을 말한다. 즉, 여성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와 문화 활동 현황,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그리고 성역할 등을 고려함으로써 여성친화적인 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고연령 여성의 문화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여성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여성의 성역할을 고려한 시설의 설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낮으면서 문화교육이나 관람의 욕구가 큰 여성을 위해 관람료나 문화강좌 수강료를 낮추고, 또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공연이나 문화강좌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의 책임이 큰 여성들을 위해 문화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이란 동시에 가족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육아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문화시설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 등에 보육편의시설을 만든다면 아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동시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남성들은 여성보다 문화욕구도 낮고 경제활동 때문에 문화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문화 활동을 할 때 남성이 가족을 동반한다면 남성의 문화향수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여성이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아이는 문화시설에서 돌봐줌으로써 아버지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보육편의시설에서 아이를 위한 문화강좌를 한다면 온 가족이 동시에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둘째, 여성이 출산, 육아 기간 동안 문화향수 같이 욕구가 높은 활동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출산의 일부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여성들이 육아 기간 동안 집안에서 머무르며 외부와 격리되어 지내기보다는 문화시설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의 기회도 많다면 육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향수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이 조성된다면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출산에 대한 욕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공연시설 내 보육 편의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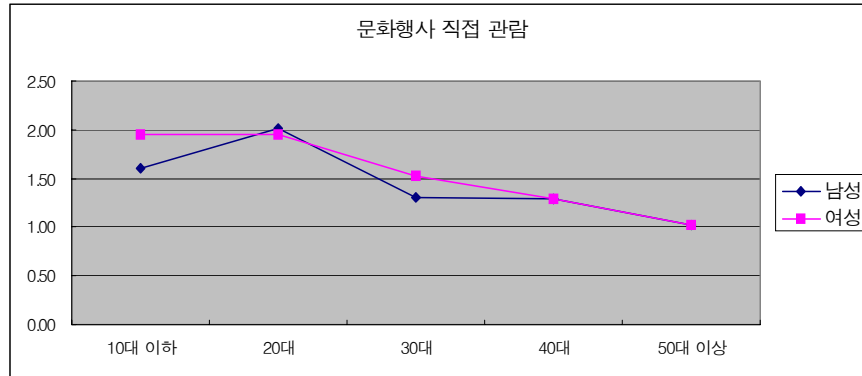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다. 가치관 요인에서는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자녀의 효용도가 낮아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은 숙명적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요인으로는 가정 내 육아 및 가사의 여성전가, 높은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 여성의 일·가정양립의 곤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문화적 육아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부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 지원,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양질의 보육편의시설 확충 등의 보육정책을 다각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은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더불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양육지원의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 보육편의시설의 확충은 여성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일차적인 보육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 충족되어 가고 있다면 이제 이차적으로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와 보육서비스가 사회 곳곳에 생겨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연시설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문화향수의 형태인 문화행사 직접관람도, 즉 공연시설 이용도를 보면, 자녀육아 시기인 30대에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하하고 이후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2>, 이수연 외, 2005, 55). 즉, 자녀 육아 부담은 여성의 문화향수에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육아지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연시설 내 여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보육 편의시설 설치·운영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공연시설 내 보육 편의시설이 설치·운영 된다면 공연관람을 위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편리성이 있으며, 공연 관람 시간 동안 가까운 곳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부모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적이고 즐거운 공간에서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2]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문화공연 직접관람도(이수연 외, 2005, 55)

더 나아가 공연시설 내 보육 편의시설이 활성화 된다면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하나로 기능하여 자녀 육아 시기에 문화생활 접근성에 제한을 덜 받음으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저출산을 해소에 도움을 주는 보육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7
2. 설문조사 결과	19
3. 심층면접 결과	48
4. 소결	58

1. 조사개요

가. 조사의 내용과 목적

보육편의시설은 여성들의 공연시설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보육편의시설의 확산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공연시설의 유형별, 객석규모별, 설립주체별로 보육편의시설 설치여부, 보육편의시설 운영현황(운영 형태, 빈도, 종사자 수, 종사자 고용 형태, 교육 프로그램 여부 등), 운영결정 계기, 운영이 관객의 관람만족도나 문화행사참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 보육편의시설 미설치 기관의 설치 필요성 인지정도, 향후 설치의향, 설치 시 장애요인, 원하는 정부의 지원 내용 등을 조사하여,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확산하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있고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조사방법 및 일정

조사는 전국공연예술실태조사(2009)에 수록된 732개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각 공연시설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공문과 함께 팩스로 송부하고 이 후에 다시 전화로 협조를 부탁하였다.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문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낮아 7월 말까지 회수된 설문지는 209부로 회수율은 28.6%에 그쳤다.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육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연시설의 설문참여의사가 낮았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209개의 공연시설 중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22곳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표 III-1>은 심층면접 대상 공연시설의 명단이다. 심층면접 내용은 보육편의시설 여부, 보육편의시설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다. 즉, 공연시설의 성격, 공연회수, 운영주체, 예산 등을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보육편의시설이 있는

18 ●●●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보육편의시설의 예산, 교사의 수, 채용방법, 자격, 고객의 특성과 만족도, 운영 애로사항 등을, 그리고 보육편의시설이 없을 경우 설치 필요성 인식 및 설치 의향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Ⅲ-1〉 심층면접 대상 공연시설 명단

번호	공연시설	지역	설립주체	규모 (객석 수)	보육편의시설 유무
1	○○문화회관	서울1	공공	4254	유
2	○○극장	서울2	공공	2690	유
3	○○공연장	서울3	민간	1000	무
4	○○국악원	서울4	공공	1144	유
5	○○아트센터	서울5	민간	1103	무
6	△△공연장	경기1	공공	4616	유
7	□□공연장	경기2	공공	2046	유
8	△△아트센터	경기3	공공	3176	유
9	××문화예술회관	경기4	공공	1062	무
10	□□□□문화회관	경기5	공공	1157	무
11	××공연장	충청1	공공	1064	무
12	△△예술회관	충청2	민간	1214	무
13	□□시문화예술체육회관	충청3	공공	1669	무
14	○○문화예술회관	경상1	공공	1636	유
15	△△문화의전당	경상2	민간	2204	유
16	××시민회관	경상3	공공	1334	무
17	□□문화체육회관	경상4	공공	1165	무
18	○○○○문화예술회관	경상5	공공	1792	무
19	△△시문화예술회관	경상6	공공	1042	무
20	□□□□문화센터	호남1	공공	1087	무
21	○○교육문화회관	호남2	공공	1502	무
22	××시문화예술회관	호남3	공공	1105	무

2.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기관의 특성

먼저 규모별로는 500석 이하가 84개(4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1~1,000석 이하가 74개(35.4%), 다음으로 1,001석 이상이 51개(24.4%)로 소규모 시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Ⅲ-2〉 조사대상기관의 객석규모별 구성

객석규모별	시설 수(개)	비율(%)
500석 이하	84	40.2
501석~1000석 이하	74	35.4
1001석 이상	51	24.4
전체	209	100.0

이는 전체 공연시설의 비율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모집단에서는 500석 이하의 비율이 61.3%로 본 조사에서는 규모가 작은 공연시설이 과소표집되었다.

〈표 Ⅲ-3〉 전국 공연시설의 객석규모별 비율

객석규모별	시설 수(개)	비율(%)
500석 이하	410	61.3
501석~1000석 이하	153	22.9
1001석 이상	106	15.8
전체	669	100.0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있는 시설이 65개(31.1%), 지방에는 144개(68.9%)로 수도권:지방이 3:7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에 소재한 시설이 97개(46.0%), 도단위에 소재한 시설이 114개(54.0%)였다.

〈표 Ⅲ-4〉 조사대상기관의 지역별 구성

구분	지역	시설 수(개)	비율(%)
지역1	수도권	65	31.1
	지방	144	68.9
지역2	광역시	95	45.5
	도단위	114	54.5
	합계	209	100.0

설립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이 150개(71.8%), 민간시설이 59개(28.2%)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비율은 7:3으로 공공시설이 훨씬 많았다.

〈표 Ⅲ-5〉 조사대상기관의 설립주체별 구성

구분	설립주체유형	시설 수(개)	비율(%)
구분1	중앙정부	3	1.4
	지방자치단체(광역)	18	8.6
	지방자치단체(기초)	127	60.8
	공기업	2	1.0
	재단법인	11	5.3
	사단법인	3	1.4
	상법인	8	3.8
	교육기관	16	7.7
	개인	17	8.1
	기타	4	1.9
구분2	공공	150	71.8
	민간	59	28.2
	합계	209	100.0

운영주체별로는 공공운영이 109개(54.8%), 민간운영 90개(45.8%)로 유사한 비율이나, 공공운영이 약간 더 많았다.

〈표 Ⅲ-6〉 조사대상기관의 운영주체별 구성

구분	운영주체유형	시설 수(개)	비율(%)
구분1	중앙정부	1	.5
	지방자치단체(광역)	11	5.3
	지방자치단체(기초)	77	36.8
	공기업	20	9.6
	재단법인	31	14.8
	사단법인	6	2.9
	상법인	8	3.8
	교육기관	15	7.2
	개인	20	9.6
	기타	10	4.8
구분2	공공	109	54.8
	민간	90	45.2
합계		199	100.0

설립연도별로 보면 30년대에서 60년대까지가 3개, 70년대가 6개, 80년대 26개, 90년대 55개, 2000년대 110개로 최근으로 오면서 공연시설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110개(55.0%)로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90년대 이후 설립된 시설이 전체의 82.5%에 해당된다.

〈표 Ⅲ-7〉 조사대상기관의 설립연도

설립연도(년)	시설 수(개)	비율(%)
1932-1960	3	1.5
1970-1979	6	3.0
1980-1989	26	13.0
1990-1999	55	27.5
2000-2010	110	55.0
합계	200	100.0

나. 공연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운영 현황

조사에 응한 공연시설 중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배경

<그림 Ⅲ-1>에서 보면 조사대상 총 209개 중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30개(14.2%), 운영하지 않는 곳이 179개(85.8%)로 보육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14.4%에 불과했다.



[그림 Ⅲ-1]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는 객석규모별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5.787$, $p=.000$). 즉 1,001석 이상은 30개 중 22개인 반면, 1,000석 이하의 8개에 불과하여, 객석규모가 큰 시설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Ⅲ-8〉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객석규모	운영	비운영	전체
500석 이하	3 3.6%	81 96.4	84 100.0%

Ⅲ.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 23

객석규모	운영	비운영	전체
501석~1000석 이하	5 6.8%	69 93.2	74 100.0%
1001석 이상	22 43.1%	29 56.9	51 100.0%
전체	30 14.4%	179 85.6%	209 100.0%

$\chi^2=45.787$, $df=2$, $p=.000$

설립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은 25개(16.7%), 민간시설에서는 5개(8.5%)로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더 높았으며 민간시설 설치율의 2배정도였다.

운영주체별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공공운영이 15개(13.8%), 민간운영이 13개(14.4%)로 설치율이 유사하였다.

〈표 Ⅲ-9〉 설립·운영주체별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항목	구분	운영	비운영	전체
설립 주체	공공	25 16.7%	125 83.3%	150 100.0%
	민간	5 8.5%	54 91.5%	59 100.0%
운영 주체	공공	15 13.8%	94 86.2%	109 100.0%
	민간	13 14.4%	77 85.6%	90 100.0%
전체		30 14.4%	179 85.6%	209 100.0%

지역별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은 11개(16.9%), 지방은 19개(13.2%)로 유사한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별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도별로는 광역시 14개(14.7%), 도 단

위 16개로 설치율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표 Ⅲ-10〉 지역별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구분	지역	운영	비운영	전체
지역1	수도권	11 16.9%	54 83.1%	65 100.0%
	지방	19 13.2%	125 86.8%	144 100.0%
지역2	광역시	14 14.7%	81 85.3%	95 100.0%
	도단위	16 14.0%	98 86.0%	114 100.0%
전체		30 14.4%	179 85.6%	209 100.0%

설립연도별로 보면 이전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이 19개로 가장 많다. 그러나 전체 시설 수에 비해서는 최근에 지어진 공연시설의 설치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로 오면서 공연문화시설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지어진 공연시설이라고 해서 보육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Ⅲ-11〉 보육편의시설 설치기관의 설립연도

설립연도	시설 수(개)	전체 시설 수(개)	비율(%)
1932-1960년	1	3	33.3
1970-1979	1	6	16.6
1980-1989	2	26	7.7
1990-1999	6	55	10.9
2000-2010	19	110	17.2
전체	29	200	14.5

<표 Ⅲ-12>에서 보육편의시설 운영계기를 보면, ‘시설자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18개(60.0%),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에 의한 경우가 7개(23.3%), ‘관객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3개(10.0%), 기타의 경우가 2개(6.7%)의 순이었다. 공연예술인들의 요구가 운영계기가 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관객의 요구에 의해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게 된 곳 3군데는 세종문화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이었다.

〈표 Ⅲ-12〉 보육편의시설 운영 계기

운영이유	시설 수(개)	비율(%)
시설자체의 의사결정	18	60.0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	7	23.3
관객의 요구	3	10.0
공연예술인의 요구	0	0.0
기타	2	6.7
전체	30	100.0

2) 운영형태

<표 Ⅲ-13>에서 운영형태를 보면, 공연이 있는 날에만 운영하는 ‘수시운영’ 형태가 23개(76.7%),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시운영’ 형태가 6개(20.0%), 기타가 1개(3.3%)의 순이었다. 수시운영형태가 76.7%로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20.0%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었다. 상시운영을 하는 곳은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수원장안구민회관, 충무아트홀, 성남아트센터이다.

〈표 Ⅲ-13〉 보육편의시설 운영 형태

운영형태	시설 수(개)	비율(%)
수시	23	76.7
상시	6	20.0
기타	1	3.3
전체	30	100.0

<표 Ⅲ-14>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실 수를 보면, 1개만 운영하는 곳이 28개(93.3%)로 가장 많았고, 2개를 운영하는 곳이 2개(6.7%) 있었다. 2개를 운영하는 곳은 군포시문화예술회관(객석규모 1,561석), 부산문화회관(객석 규모 2,446석)으로 공공시설이면서 객석규모가 1,500석을 넘는 곳이었다.

〈표 Ⅲ-14〉 시설 내 보육실 수

시설 내 보육실 수	시설 수(개)	비율(%)
1개	28	93.3
2개	2	6.7
전체	30	100.0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소연령은 0세부터 5세까지였으나, 3세(57.1%)와 4세(17.9%)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2세 이하(0세, 1세, 2세)도 이용할 수 있는 6개 시설은 국립부산국악원(470석),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478석), 서울열린극장창동(605석), 옥천문화예술회관(879석),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974석), 해운대문화회관(1156석)으로 객석규모로는 500석 이하가 2개, 501-1,000석 이하가 3개, 1,001석 이상이 1개로 객석규모는 다양했으며, 6개 모두 공공시설이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고연령은 7세~9세였으며 7세가 22개소로 가장 많았다. 연령구간을 보면 3세~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1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4세~7세로 5개이며, 나머지는 최소, 최대연령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표 Ⅲ-15〉 시설이용 아동의 연령대

연령대	시설 수(개)	비율(%)
3-7세	14	50.0
4-7세	5	17.9
5-7세	1	3.6
0-6세	2	7.1
기타	6	21.4
전체	28	100.0

<표 Ⅲ-16>에서 보육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내용을 살펴보면, 24개(80.0%)시설은 단순한 자유놀이 등 ‘돌봄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었고, 6개(20.0%)시설에서는 조형 활동, 색칠하기, 종이접기, 책이나 영상물 보기 등 중사자가 미리 계획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사례조사 참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6개 공연시설은 객석규모면에서 최소 1,144석, 최대 4,616석의 대형시설이었으며, 설립주체로는 공공시설은 2개소이나 민간시설이 4개소로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 쪽이 더 많다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표 Ⅲ-16〉 보육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내용

보육내용	시설 수(개)	비율(%)
돌봄 기능	24	80.0
프로그램 운영	6	20.0
전체	30	100.0

<표 Ⅲ-17>에서 보육편의시설의 보육교사 수를 보면, 1명이 13개(43.3%)로 가장 많았고, 2명이 10개(33.3%), 3명이 3개(10.0%), 4명과 근무자가 없다는 곳이 각각 2개(6.7)로 파악되었다. 근무자가 없다는 곳은 군포시문화예술회관(605석)과 해운대문화회관(1,561석)으로 2곳 모두 공공시설이지만 근무자를 두고 있지 않았다.

〈표 Ⅲ-17〉 보육편의시설의 보육교사 수

보육교사 수	시설 수(개)	비율(%)
0명	2	6.7
1명	13	43.3
2명	10	33.3
3명	3	10.0
4명	2	6.7
전체	30	100.0

<표 Ⅲ-18>에서 보육교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공연시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운영하는 경우가 12개(54.5%)로 가장 많았다. 계약직, 임시직이 3개(13.6%), 자원봉사자나 공연안내원을 활용한다는 기타가 3개(13.6%)로, 대부분 비정규직의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1개(3.1%)에 불과하였다.

〈표 Ⅲ-18〉 보육편의시설 보육교사의 고용형태

고용형태	시설 수(개)	비율(%)
아르바이트	12	54.5
계약직	3	13.6
임시직	3	13.6
기타	3	13.6
정규직	1	4.5
전체	22	100.0

* 복수응답임

보육교사의 임금형태는 시간급이 11개(36.7%)로 가장 많았고, 월급이 10개(33.3%), 일급이 6개(20.0%), 기타가 3개(10.0%)의 순이었다.

〈표 Ⅲ-19〉 보육편의시설 보육교사의 임금형태

임금형태	시설 수(개)	비율(%)
월급	10	33.3%
일급	6	20.0%
시간급	11	36.7%
기타	3	10.0%
전체	30	100.0%

* 복수응답임

3) 보육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관람만족도 및 문화행사참가율에 대한 인식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관객들의 관람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매우 큰 영향을 줄 것’과 ‘약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43.3%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이 관람객의 관람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표 Ⅲ-20〉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람만족도	시설 수(개)	비율(%)
매우 큰 영향 줄 것임	13	43.3
약간 영향 미칠 것임	13	43.3
별 영향 미치지 않을 것임	3	10.0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임	0	0.0
잘 모르겠음	1	3.3
전체	30	100.0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에 따라 보육편의시설이 관객의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 간에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운영하고 있는 시설 쪽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보다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t=3.795$, $p=.000$).

〈표 Ⅲ-21〉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에 따른 보육편의시설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운영	29	3.3448	.6695	187	3.795	.000
비운영	160	2.7313	.8220			

<표 Ⅲ-22>에서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임’이 30.0%, ‘약간 영향을 줄 것임’이 53.3%로 83.3%의 높은 비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Ⅲ-22〉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문화행사참가율	시설 수(개)	비율(%)
매우 큰 영향 줄 것임	9	30.0
약간 영향 미칠 것임	16	53.3
별 영향 미치지 않을 것임	4	13.3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임	0	0.0
잘 모르겠음	1	3.3
합계	30	100.0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 간에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가 관객의 문화행사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를 한 결과, 두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운영하고 있는 시설 쪽이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t=3.477$, $p<.05$).

〈표 Ⅲ-23〉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별 보육편의시설이 문화행사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보육편의시설 운영여부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운영	29	3.1724	.6584	187	3.795	.000
미운영	165	2.6424	.7726			

다. 보육편의시설 설치 의향과 가능성

1) 보육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현재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이 없는 기관 17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절반가량인 90개소(50.3%)는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Ⅲ-24〉 보육편의시설 없는 공연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필요성 인식 여부

필요성 인식	시설 수(개)	비율(%)
있다	90	50.3
없다	81	45.3
모르겠다	7	3.9
무응답	1	0.5
전체	179	100.0

가) 필요성을 느끼는 공연시설의 특성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특성을 보면, 먼저 객석규모별로는 500석 이하 중 47.5%, 501-1,000석 중 52.2%, 1,001석 이상 중 55.2%로 객석규모가 큰 기관에서 필요성을 약간 더 느끼고 있었지만, 객석규모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객석규모가 작은 시설에서도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규모별 설치현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현재는 규모가 큰 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히 높지만 이는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산 등 설치조건의 차이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Ⅲ-25〉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연시설의 객석규모별 특성

객석규모	시설 수(개)	미설치기관 전체 시설 수(개)	비율(%)
500석 이하	38	80	47.5
501석~1000석 이하	36	69	52.2
1001석 이상	16	29	55.2
전체	90	178	50.6

설립주체별로는 공공기관이 66개(73.3%), 민간기관이 24개(36.7%)로 공공기관 쪽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표 Ⅲ-26〉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연시설의 설립주체별 특성

설립주체	시설 수(개)	미설치기관 전체 시설 수(개)	비율(%)
공공	66	124	53.2
민간	24	54	44.4
전체	90	178	50.6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중 59.2%, 지방소재 중 46.8%로 수도권이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표 Ⅲ-27〉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연시설의 위치

지역	시설 수(개)	미설치기관 전체 시설 수(개)	비율(%)
수도권	32	54	59.2
지방	58	124	46.8
전체	90	178	50.6

$\chi^2=6.064$, $df=2$, $p=.048$

나) 필요성 없다는 공연시설의 특성

설치·운영이 필요 없다는 시설 128개소에 대해 불필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공간부족(23.8%)과 아동 수 부족(23.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리전반 어려움(16.9%)과 인력부족(8.5%)을 들고 있다.

〈표 Ⅲ-28〉 보육편의시설 불필요 이유

이유	응답(N)	비율(%)
공간 확보	31	23.8
아동 수 부족	31	23.8
관리 전반 어려움	22	16.9
재원 확보	17	13.1
인력 부족	11	8.5
안전 책임	3	2.3
기타	15	11.5
전체	130	100.0

* 복수응답임

객석규모별로는 500석 이하 시설에서는 공간확보와 아동 수 부족을, 501석 이상 1,000석 이하 시설에서는 아동 수 부족과 공간확보를, 1,001석 이상 시설에서는 관리전반, 아동 수 부족, 공간확보를 들고 있는데, 규모별로도 공간확보와 아동 수 부족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불필요한 이유로 ‘공간부족’을 지적한 시설은 보육편의시설을 불필요한 시설로 생각한다기보다 역으로 공간이 없어서 불필요한 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표 Ⅲ-29〉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불필요 이유

객석규모 \ 이유	공간 확보	재원 확보	인력 문제	아동 부족	안전 책임	관리 전반 어려움	기타	전체
500석 이하	13 33.3%	8 20.5%	4 10.3%	14 35.9%	2 5.1%	7 17.9%	9 23.1%	39
501석 ~ 1000석 이하	14 48.3%	7 24.1%	5 17.2%	13 44.8%	0 .0%	9 31.0%	3 10.3%	29
1001석 이상	4 33.3%	2 16.7%	2 16.7%	4 33.3%	1 8.3%	6 50.0%	3 25.0%	12
전체	31	17	11	31	3	22	15	80

* 복수응답임

설립주체별로도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모두 ‘공간확보’와 ‘아동 수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아동 수 부족’ 문제가 민간부문에서는 ‘공간확보’ 문제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표 Ⅲ-30〉 설립주체별 보육편의시설 필요 없다는 기관의 불필요 이유

설립주체 \ 이유	공간 확보	재원 확보	인력 문제	아동 부족	안전 책임	관리 전반 어려움	기타	전체
공공	21 38.2%	12 21.8%	9 16.4%	23 41.8%	1 1.8%	17 30.9%	9 16.4%	55
민간	10 40.0%	5 20.0%	2 8.0%	8 32.0%	2 8.0%	5 20.0%	6 24.0%	25
전체	31	17	11	31	3	22	15	80

* 복수응답임

2) 설치의향

현재는 보육편의시설이 없지만 앞으로 설치의향이 있다는 기관을 대상으

로 이들 기관의 시설유형별, 객석규모별, 설립주체별,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고, 설치할 경우 기관 내 설치공간 확보여부, 설치형태, 설치 시 장애요인,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설치의향이 있는 시설

보육편의시설이 없는 기관 179개소 중 설치의향이 ‘있다’는 기관은 50개소(27.9%)였다. 앞에서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필요성을 느낀다는 기관이 90개소였는데 설치의향을 가진 기관은 50개소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관 중 절반정도인 55.5%가 설치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Ⅲ-31〉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설치, 운영 의향	시설 수(개)	비율(%)
있다	50	27.9
없다	128	71.5
무응답	1	0.6
전체	179	100.0

설치의향이 있다는 50개 기관을 객석규모별로 보면 501석~1,000석 이하 기관의 설치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501-1,000석이 23개소, 500석이하가 19개소로 많았으며, 1,001석 이상도 5개소가 있었다.

〈표 Ⅲ-32〉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객석규모	시설 수(개)	비율(%)
500석 이하	19	40.4
501석~1000석	23	48.9
1001석 이상	5	10.6
전체	47	100.0

설립주체별로는 공공이 34개, 민간이 16개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2배 정도 설치의향이 높았다.

〈표 Ⅲ-33〉 설립주체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설립주체	시설 수(개)	비율(%)
공공	34	68.0
민간	16	32.0
전체	50	100.0

설립주체별로는 공공부문에서는 중간 규모인 501-1000석 이하의 설치의향이 52.9%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가장 적은 규모인 500석 이하의 설치의향이 62.5%로 가장 높았다.

〈표 Ⅲ-34〉 설립주체와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설립주체 \ 객석규모	500석 이하	501석 ~ 1000석 이하	1001석 이상	전체
공공	12 35.3%	18 52.9%	4 11.8%	34 100.0%
민간	10 62.5%	5 31.3%	1 6.3%	16 100.0%
전체	22 44.0%	23 46.0%	5 10.0%	50 100.0%

설치의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내 여유 공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있다’가 18.4%, ‘없지만 확보가능하다’가 28.6%로 절반가량은 여유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35〉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있다는 공연시설의 설치공간 유무

설치공간	시설 수(개)	비율(%)
있다	9	18.4
없다	26	53.1
현재 없지만 확보 가능하다	14	28.6
전체	49	100.0

설립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33개소 중 16개(48.5%), 민간부문에서는 16개 중 7개(43.8%)가 현재 있거나 확보가능하다고 하여 공공, 민간 모두 공간 확보 면에서는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6〉 설치의향이 있다는 기관의 설립주체별 설치공간 유무

여유공간 유무 공공/민간	공간있음	공간없음	현재 없지만 확보가능	전체
공공	7 21.2%	17 51.5%	9 27.3%	33 100.0%
민간	2 12.5%	9 56.3%	5 31.3%	16 100.0%
전체	9 18.4%	26 53.1%	14 28.6%	49 100.0%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운영되는 ‘수시운영’ 형태가 36개(73.5%)로 많았으며, ‘상시운영’도 13개(26.5%)가 나왔다.

〈표 Ⅲ-37〉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 있다는 기관의 예상되는 운영형태

운영형태	시설 수(개)	비율(%)
수시	36	73.5
상시	13	26.5
합계	49	100.0

설립주체별 예상되는 운영형태를 보면, 수시운영형태가 공공부문은 67.6%, 민간부문은 86.7%로 민간부문의 수시형태 선호도가 훨씬 높다.

〈표 Ⅲ-38〉 설립주체별 예상되는 운영형태

설립주체 \ 예상 운영형태	상시	수시	전체
공공	11 32.4%	23 67.6%	34 100.0%
민간	2 13.3%	13 86.7%	15 100.0%
전체	13 26.5%	36 73.5%	49 100.0%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이 있는 기관이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애요인에 대해, 자원 확보(39.1%)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이 인력문제(21.9%)와 공간확보(20.3%)였다.

〈표 Ⅲ-39〉 설치 의향이 있는 공연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설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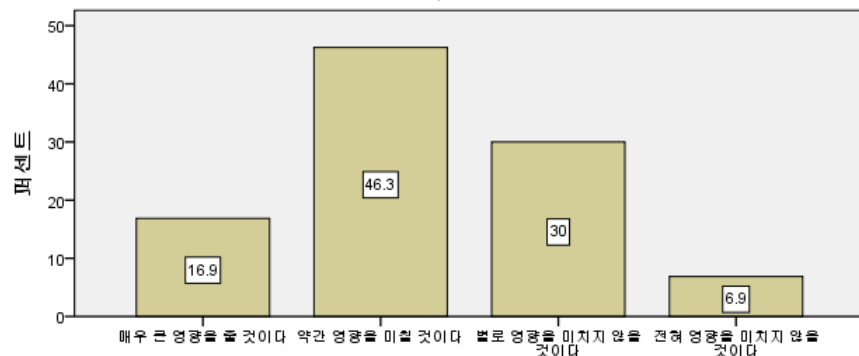
장애요인	시설 수(개)	비율(%)
공간 확보	13	20.3
자원 확보	25	39.1
인력 문제	14	21.9
이용아동 수 부족	2	3.1
안전 책임	2	3.1
관리전반 어려움	8	12.5
전체	64	100.0

* 복수응답임

3)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람만족도, 관객참가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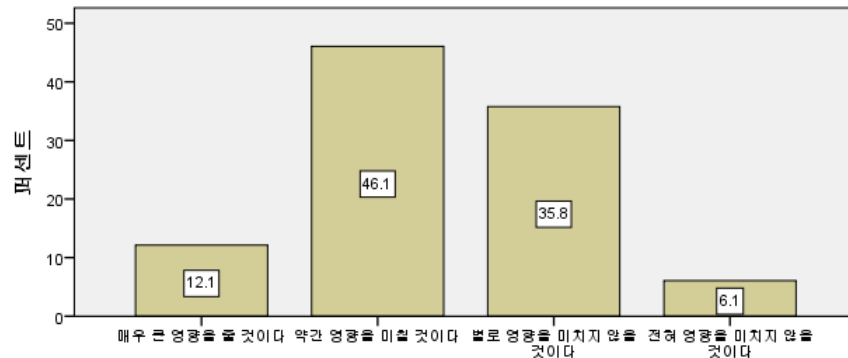
현재는 보육편의시설이 없지만,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객들의 관람만족도와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보육편의시설 필요성도 느끼고 설치의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관람만족도와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 보육편의시설 필요성을 느끼는 집단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 그리고 설치의향이 있다는 집단과 없다는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에서 ‘매우 혹은 약간 영향 미칠 것’이 63.2%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그림 Ⅲ-2]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전체적으로는 ‘매우 혹은 약간 영향 미칠 것’이라는 비율이 58.2%, ‘약간 혹은 전혀 미칠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41.8%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쪽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Ⅲ-3]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가)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필요성 인식 여부별

보육편의시설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과 인식하지 않는 집단 간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관람만족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t=8.138$, $p=.000$). 즉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의 관람만족도 점수(3.12)가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의 점수(2.21)보다 훨씬 높아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이 관람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40〉 보육편의시설 필요성 인식여부별 시설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차이

필요성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있음	86	3.1279	.6286	153	8.138	.000
없음	69	2.2174	.7644			

보육편의시설 필요성 인식여부에 따라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t=7.598$, $p=.000$). 즉 필요하다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집단보다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문화행사참가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Ⅲ-41〉 보육편의시설 필요성 인식여부별 시설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필요성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있음	85	3.0000	.6361	156	7.598	.000
없음	73	2.1918	.7003			

나) 보육편의시설 설치 의향 여부별

보육편의시설 설치 의향 여부별로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았다.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059$, $p=.000$). 즉 설치의향이 있는 집단의 관람만족도 점수(3.28)가 설치의향이 없는 집단의 점수(2.49)보다 훨씬 높게 나와, 설치 의향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가 관람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42〉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여부별 시설운영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설치 의향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있음	46	3.2826	.6205	157	6.095	.000
없음	113	2.4956	.7806			

보육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은 설치의향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385$, $p=.000$). 즉 설치의향이 있다는 집단은 설치의향이 없다는 집단보다 보육편의시설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Ⅲ-43〉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여부별 시설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설치 의향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있음	46	3.2609	.6122	156	7.385	.000
없음	118	2.3983	.6935			

4) 보육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

미설치기관 1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간확보(28.2%)와 재원확보(23.7%)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표 Ⅲ-44〉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요인

장애요인	응답(N)	비율(%)
공간 확보	74	28.2
재원 확보	62	23.7
관리 전반 어려움	45	17.2
아동 수 부족	35	13.4
인력부족	30	11.5
안전책임	9	3.4
기타	7	2.7
전체	262	100.0

* 복수응답임

객석규모별로는 1,000석 이하와 1,001석 이상에서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000석 이하에서는 공간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1,001석 이상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재원확보(37.5%), 공간확보(29.2%)의 순으로 재원확보가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Ⅲ-45〉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요인

장애요인 객석규모	공간 확보	재원 확보	인력 문제	아동 부족	안전 책임	관리 전반 어려움	기타	전체
500석 이하	30 52.6%	14 24.6%	7 12.3%	15 26.3%	6 10.5%	15 26.3%	3 5.3%	57
501석~1000석 이하	24 53.3%	14 31.1%	5 11.1%	14 31.1%	1 2.2%	12 26.7%	2 4.4%	45
1001석 이상	7 29.2%	9 37.5%	3 12.5%	4 16.7%	0 .0%	10 41.7%	2 8.3%	24
전체	61	37	15	33	7	37	7	126

* 복수응답임

설치의향이 있다는 기관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비 지원’(47.4%)과 ‘교사 인건비 지원’(38.2%)이 가장 많았다.

〈표 Ⅲ-46〉 보육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부지원

지원내용	응답(N)	비율(%)
시설설치비 지원	36	47.4
교사인건비 지원	29	38.2
운영비 지원	7	9.2
프로그램 지원	4	5.3
전체	76	100.0

* 복수응답임

객석규모별로 보면 모든 시설규모에서 ‘시설설치비 지원’이 가장 주된 지원내용이 되고 있고 다음이 ‘교사인건비 지원’의 순이다.

〈표 Ⅲ-47〉 객석규모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부지원

객석규모 \ 정부지원	시설설치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전체
500석 이하	16 72.7%	13 59.1%	4 18.2%	4 18.2	22
501석~1000석 이하	15 65.2%	14 60.9%	3 13.0%	0 0.0%	23
1001석 이상	5 100.0%	2 40.0%	0 0.0%	0 0.0%	5
전체	36	29	7	4	50

* 복수응답임

라. 설문조사 요약

본장에서는 209개 공연시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209개 공연시설을 보육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나누고 이를 다시 객석규모별,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여부, 향후 설치의향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설치할 경우 주요 장애요인과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을 알아보았다.

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운영 현황

- ① 설치율: 총 209개소 30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은 14.4%에 불과하다. 객석규모가 1001석 이상, 공공시설이 70%를 차지하여 소규모 시설과 민간시설이 열악하므로 이들 기관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② 보육편의시설 운영계기: 시설자체의 의사결정이 18개(60.0%),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이 7개(23.3%)로 기관장의 의지나 의사결정이 설치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운영형태: 수시운영이 23개(76.7%), 상시운영이 6개(20.0%)로 설치시에는

수시운영을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⑤ 시설이용 아동연령: 최소연령은 3세(57.1%)가 가장 일반적이고, 최고 연령은 7세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3세~7세의 아동이 주된 보호대상 이므로, 보호인력도 보육이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소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⑥ 제공하는 보육내용: 단순 돌봄 기능이 24개(80.0%), 프로그램 제공이 6개(20.0)로 공연시간에 국한되는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20%가 있었다는 점은, 유아를 잠재적인 문화향수층으로 보고 이들에게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로 사려된다. 비용수반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⑦ 보육교사 고용형태: 아르바이트생 12개(54.5%), 계약직, 임시직이 3개 (13.6%), 자원봉사자나 공연안내원 활용이 3개(13.6%)로, 대부분 비정 규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규모가 작고 공연회수가 적은 곳은 자원봉 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다.
- ⑧ 보육교사 임금형태: 시간급 11개(36.7%), 월급 10개(33.3%), 일급 6개 (20.0%), 기타 3개(10.0%)로 보육교사의 고용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임 금지급형태 역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 ⑨ 보육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관람만족도 및 문화행사참가율에 대한 인 식: ‘매우 혹은 약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86.6%로, 83.3%로 대부분의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이 관람객의 관람만족 도와 문화행사참가율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며, 보육편의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는 운영하지 않는 쪽보다 관람만족도와 문화 행사참가율에 대한 효과를 훨씬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종사자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2) 운영하지 않는 공연시설의 특징

- ① 미설치율: 조사대상기관 209개 중 179개(85.7%)가 미설치상태로, 객석 규모가 적고 민간시설인 경우를 제외해도 시설설치율이 50%정도에

그치고 있어 장애요인 파악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 ② 설치운영 필요성 인식: 미설치시설 179개 중 절반인 90개(50.3%)가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객석 규모에서 절반정도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③ 설치의향: 179개 중 50개(27.9%)가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이 있었는데, 미설치율이 높은 500석 이하와 1,000석 이하가 역시 높았다. 1,000석 이하 시설에서 설치의향도 있고 설치공간이 있거나 확보가능한 곳은 49.0%로 절반가량은 공간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었다.
- ④ 설치의향이 있는 기관의 설치 시 장애요인: 공간확보(39.1%)-재원확보(21.9%)-인력문제(20.3%)의 순이었다.
- ⑤ 설치의향기관이 원하는 정부지원: 설치비 지원(47.4%)과 교사인건비 지원(38.2%)이 가장 많았는데, 설치비의 경우 나중에는 개보수비용도 따르겠지만 시작초기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문화시설이 독립건물로 건립될 경우에는 필수시설로 설계에 포함되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지침마련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3)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필요 없다는 기관의 특성

- ① 불필요 이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128개 기관이 말하는 불필요한 이유는 공간부족(23.8%), 아동수 부족(23.8%)이 큰 요인이었으며, 관리전반 어려움(16.9%), 인력부족(8.5%)의 순이었다. 여기서 아동수 부족 문제는 공연횟수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해 오지 않은 결과 관람객이 아예 관람자체를 포기하거나 욕구 자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으므로, 지역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권리보장을 위해 제공 가능한 제반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질의 수준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② 설치 시 장애요인: 보육편의시설 없는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장애요인 역시 공간확보(28.2%) 문제가 가장 컸고, 다음이 재원확보(23.7%)였다. 1,000석 이하 규모에서는 공간확보가, 1,001석 이상에서는 재원확보(37.5%)가 장애요인으로, 설치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공간확보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관객의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보육편의시설 필요성을 느끼는 집단/느끼지 못하는 집단, 그리고 설치의향이 있는 집단/없는 집단 간에 관람만족도, 관객참가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필요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관람만족도에 ‘매우 혹은 약간영향 미칠 것임’이 85.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집단은 33.3%로 차이가 매우 컸다. 또 설치의향이 있다는 집단은 관람만족도에 ‘매우 혹은 약간 영향 미칠 것임’이라는 비율이 91.3%, 설치의향이 없는 집단은 51.4%로 집단 간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 ④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는 ‘매우 혹은 약간 영향 미칠 것’이라는 비율이 58.2%, ‘약간 혹은 전혀 미칠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41.8%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보육편의시설 설치하는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관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필요하다는 집단은 ‘매우 혹은 약간 영향 미칠 것’이 80.0%, 필요하지 않다는 집단은 30.1%로 양 집단 간 차이가 매우 컸다. 시설의 설치·운영이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설치의향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설치의향이 있다는 집단은 ‘매우 혹은 약간 영향 미칠 것임’이 91.3%, 설치의향이 없는 기관은 44.9%로 집단 간 인식간극이 매우 컸다. 여기서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필요성도 느끼고 설치의향도 있는 기관의 경우, 관람만족도는 ‘매우 혹은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92.8%, 문화행사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혹은 약간 영향을 미칠 것임’이 92.8%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이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심층면접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209개 공연시설 중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은 크게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곳은 객석규모가 1,000석 이상인 곳을 선택하여 객석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제는 공연시설에서 느끼는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 보육편의시설 운영 시 애로점, 보육편의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법, 희망하는 정부지원의 내용 등이다.

가.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

1)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시설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시설에서는 대부분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연장에 보육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는 점, 관객에게 도움이 되면 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 보육편의시설의 주 고객인 젊은 여성관객의 중요성, 그리고 공연시설 자체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한번 아이를 맡겨본 고객은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하여 운영중인 시설에서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가) 주세

요즘은 지역마다 공연장이 다 있고, 특히 새로 개관하는 곳은 어린이 공연장이 아니면 편의시설로 다 설치하는 추세이다. 최근 맞벌이가 많고 핵가족이며 공연이 거의 저녁이므로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다. 서울, 경기권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 2)

최근에는 공연시설이 공연장만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공간으로 많이 열어 아마추어 단체, 동아리, 교육장소 등의 사용이 늘고 있으므로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 공연기관이 예술인,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면, 예술인도 예술을 즐기는 관객도 증가할 것이다. (경기 1)

나) 고객 서비스 차원

관객이 공연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최근 전반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공연장이라면 서비스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 (경기 2)

한번이라도 이용한 관객들은 자주 공연을 보러온다. 놀이방 설치가 더 활성화되면 관람객 수도 올라가고, 더 나아가 공연인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공연 장소에서 공연도 보고, 아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등 맞물려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공연장도 테마로 가게 될 것이다. (경기 1)

다) 시설 이미지

큰 공연장이다 보니 젊은 여성들은 편의시설로서 당연히 있어야 이미지가 올라간다. (서울 1)

라) 젊은 여성관객의 중요성

여성들은 출산 후 보통 아이가 5-6세가 될 때까지 마음 놓고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젊은 여성들을 위해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지역자체가 신혼부부,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이용했던 사람은 다 알고 예약하고 자주 이용한다. (경기 1)

매달 1-2회 이상 주부들을 위한 공연이 오전 10시에 있다. 주부관객 중 절반 이상이 다 큰 자녀를 둔 여성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 자녀를 둔 주부관객이 늘어나고 있어 요구도가 올라가는 추세이며, 문의가 오면 이용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경기 2)

공연에 따라 다르다. 2-30대 여성이 좋아하는 공연이면 아이들 많이 말긴다. (경기 2)

마) 긍정적 효과

일단 맡겨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다. 이용객들은 모두 만족해하고 99%가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경기 2)

2)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공연시설

가) 필요성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공연시설에서도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들도 이미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한 곳과 같은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즉, 웬만한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추세이고 따라서 시설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객에 대한 서비스이면서 공연을 보고 싶으나 아이들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잠재관객에 대한 고려이기도 하다. 특히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는 더욱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못지않게 지방에 있는 공연시설에서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에는 규모가 좀 있는 곳은 다 구비를 하는 것 같다. 애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의향은 있으며 조건이 지원되면 할 수 있다. 사천시와 삼천시가 합쳐져서 이름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지만 위치는 삼천 쪽에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보육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경상 6)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관객도 있고 지금 추세가 그런 시설을 구비하는 추세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관객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상 5)

문화동에 손님들이 공연을 같이 보겠다고 간혹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 고객을 위해 아이들 보호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경상 3)

나) 설치하는데 장애요소

그러나 면접에 응답한 공연시설 관계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간부족, 교사인력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예산문제 등을 들어 보육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함을 말하였다. 특히 공공시설인 경우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보육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재단법인이나 사설영리단체인 경우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지출을 늘리는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다. 또 공연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보육교사 수급 문제와 맞물리는데 이 경우 미미한 수입으로 보육교사를 담당할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육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앞의 장애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 해결되어도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많은 공공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 부담이어서 현재의 인력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더구나 어린이의 안전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 한다.

안전사고 문제, 관리운영문제, 예산문제, 불필요한 민원제기 문제 등 아무래도 민원이 하나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 (경기 2)

또 현재에 아동을 동반하는 관객이 많지 않음을 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잠재관객에 대한 인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보육편의시설 운영의 애로점

1) 보육교사 관리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육교사 확보는 보육편의시설을 설

치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시설에서도 보육교사 수급의 애로점을 토로한다. 공연시설의 보육편의시설은 정식 보육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다. 계약직인 경우 주교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부교사는 무자격자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경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연시설 성격상 근무시간이 정기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를 오래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낮 근무자보다 주말 및 저녁근무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경기 3)

설문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교사는 아르바이트로 쓰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며 그 외에는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이며 정규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본 조사에서 정규직일 경우는 보육교사가 주 업무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겸직하는 사례임). 규모에 따라 상시로 4명이 근무하는 기관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보통 교사 1명이 약 5-10명 정도 아이를 맡아서 운영한다. 그런데 위탁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1명이 운영하기 힘들면 그 날은 공연안내원이나 유아교육과 학생 알바 등 2-3명 더 배치해서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한다. (경상 2)

2) 보육교사의 애로

현직 보육교사도 다음과 같이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저수당의 애로점을 말하고 있다.

가) 근무시간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애로사항이다. “공연이 있는 날만 출근하므로 비정규적인 근무시간이고 공연이 아침부터 있는 날은 최대 9시간 근무, 주말 특히 토요일은 거의 저녁공연까지 full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은 근무하기 어렵다. 시간 및 일당으로 지급받는 보수, 즉 알바 개념이다.” (경기 1 종사자)

나) 급여

낮은 급여는 이 직장에 대한 충성심을 낮게 한다. 한 종사자는 “처우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정도 된다면 애착을 가지고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경기 2 종사자)

다) 경력

정식 보육시설이 아니니까 경력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자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동의 안전이나 매번 다른 아이들을 보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3) 편의 시설로서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

공연시설 안에 설치한 보육시설은 편의시설이다. 따라서 상시 보육시설과는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다. 일단 매번 처음 보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상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그리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아이나 부모에 대해 전혀 사전정보가 없으므로 돌발 상황 예측이 어려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 이용을 예약제로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바로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 사전에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모들로서도 보육편의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 등을 주지하지 못해 해당이 안 되는 아이를 맡기려고 하여 옥신각신하기도 한다.

1. 연령제한을 반드시 지키므로 입장연령 때문에 부모와 실랑이하는 것이 가장 많다.
2. 갓난아기, 36개월 이하 아이들은 케어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아동대 교사비율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고 하면 불평이 많다.
3.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냐는 관객도 많지만 불가하다.
4. 초등생도 갈데없다고 맡기는 경우 불가하다

5. 아픈 아이, 무지 산만하거나 까다로운 아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 등 공연시간 길어지면 난감하다. (경기 2)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이들 중에는 말을 안 듣거나 산만한 아이들도 있어서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아이나 부모에 대해 전혀 사전정보가 없으므로 돌발 상황 예측이 어려우므로 스트레스 있다. (경기 2 종사자)

- 안전사고의 책임

OOO의 놀이방에 화재가 한번 났었다. 그 문제로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치 계획은 아직 없다.(경기 4)

다. 모범 사례

21개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여러 공연시설에도 적용할만한 모범사례가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용, 그리고 홍보 등에서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1) 프로그램 운영 사례

앞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육편의시설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은 30개 중 6개에 불과했다. 보통은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기능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부모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다른 시설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보육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영상물 상영, 책읽기, 미술 활동(색칠하기, 찰흙놀이, 종이접기)으로 이루어진다. 영상물은 아이들이 많

을 경우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미술활동은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 있어 부모들이 만족해한다.

명절이 끼어 있는 경우 한복입기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만들기 내용도 주제에 맞게 하는 시설도 있다(성남아트센터).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김해문화의 전당).

공연장의 성격에 맞추어 유아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 시설도 있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을 공연하는 공연장의 성격에 맞게 부모를 동반하는 유아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관련된 소품들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을 ‘유아누리놀이방’에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연초에 일 년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월별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표 III-48>은 2010년 8월의 프로그램 사례이다.

<표 III-48> 유아누리놀이방 8월 세부일정(평일 저녁공연시간 19:30~21:00 기준)

시 간	체 험 내 용 <주제 : 우리나라 대한민국>
19:00~19:30	- 친구들 맞이하기! 자유롭게 장구, 소고를 두드려보거나 암벽타기 등 자유 활동
19:30~20:10	- ‘부채 & 청사초롱’ 만들기 귀가 시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20:10~20:25	- 간식 제공 및 화장실 다녀오기
20:25~20:45	- 장구, 소고 배우기(별달거리 3, 4 / 별달거리 이론공부)
20:45~21:00	- 전래놀이 체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문놀이), 전래동요 배우기 (쥐야 쥐야, 똥산 늪은 호랑이)
21:00~공연 종료 시까지	- 정리 및 인사 만들기 작품을 가지고 부모님께 안전하게 인계

자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servlet/ncktpa_2006.w58_LectureSvlt_2006?work_type=VIEW&seq=424)

여기서 매월 만들기와 전래놀이 및 동요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만들기는 ‘부채’, ‘청사초롱’ 외에도 ‘족자’, ‘제기’ 등이 있고 전래놀이/동요는 ‘웃놀이’, ‘제기차기’, ‘수박, 포도, 사과 따기 게임’, ‘꼬리따기’, ‘대문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있으며 전래동요에는 ‘똥산 늪은 호랑이’, ‘아리

랑’, ‘꼬마야 꼬마야’, ‘나무타령’, ‘수박타령’, ‘개고리타령’, 그리고 ‘장고/소고 배우기’, ‘굿거리장단’, ‘인사장단’, ‘악기기호’, ‘구름’ 등 매달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악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강사들이 진행하여 전문성이 높으며 문화공연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

2) 인력 운용

가) 자원봉사자 활용

돌봄을 담당할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보육편의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30곳 중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이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계약직, 임시직, 기타이고 정규직을 이용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공연이 몇 번 있어야 하고 그나마 공연회수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되면 아르바이트직이라도 쓸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두 번의 공연으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연이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보육교사의 공급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

공연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경상도의 한 공연시설(경상 1)은 기획공연이 한 달에 1~2회씩 일 년에 24번 정도 있는데 자원봉사자 풀을 운영하여 보육교사를 공급하고 있다. 즉, 8명의 자원봉사자가 돌아가면서 평균 3회씩 보육교사로 일하게 된다. 보육편의시설은 최대 15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일 년에 10만 원 정도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나) 상시 운영

보육편의시설을 상시로 운영하게 되면 보육교사를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따라서 공연이 매일 있는 곳은 상시로 운영하는 것도 보육교사 공급이나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보통은 공연이 매일 있지 않기 때문

에 이것이 어려운데 공연시설이 복합적이어서 문화교육시설이나 공연장이 같이 있는 경우 상시로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의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전시 관람객과 아카데미 수강생, 그리고 공연관객을 위하여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4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직이 한 명 있다. 일주일에 6일씩 일하고 8시간씩 교대 근무한다.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가능하고 경력은 꼭 필요하지 않다.

3) 홍보

사실상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관객이 많아 보육편의시설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공연시설은 이를 홍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장 안에는 다른 편의시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하고 어린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로 보육편의시설을 안내하지는 않고) 문의를 하면 운영안내를 한다.(경상 2)

하지만 큰 시설에는 사전에 보육편의시설이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잠재이용객이 보육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을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지만 공간과 돌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홍보를 해서 이용객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다른 이유는 보육편의시설 업무는 독립된 업무라기보다는 다른 업무에 병행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보육편의시설의 홍보를 잘 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은 홈페이지에 놀이방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잘 홍보하고 있다 (<http://www.sac.or.kr/Space/child.jsp>). 또 김해문화의 전당은 보육편의시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홍보에 놀이방의 프로그램을 포

함하여 하기도 함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육편의시설을 홍보하기도 한다. 앞의 국립국악원 경우처럼 매달 보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설도 있다.

4. 소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 운영은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응답한 공연시설 중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14.4%이었다. 이는 반드시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공연시설이 보육편의시설을 갖추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객석규모나 공연회수가 너무 작은 곳은 현실적으로 보육편의시설을 갖추기가 힘들다. 2009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05개 공연시설 중 객석 수가 100석 미만인 곳이 81곳으로 9%이다. 그리고 객석수가 300석 이하인 곳이 44.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연회수가 한 달에 1, 2회에 불과한 곳도 있어 모든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응답한 보육편의시설이 없는 공연시설 179곳 중 보육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기관이 90곳으로 50.3%, 또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곳은 50곳으로 27.9%로 나타나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보육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곳은 공간이나 자원 확보가 어렵거나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 그리고 아동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국가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줌으로써 공연시설 내에 보육편의시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편의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공간확보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자원확보와 인력의 수급문제이다. 공간부족은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어 이 경우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공연시설이 밀집된 곳에서는 여러 공연시설에서 협력하여 공동보육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보육편의시설

은 공연장 내에 있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편의시설의 확장을 위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는 공연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친화적 공연시설을 만드는 단기적인 방안이다. 나아가 공연시설의 운영자들이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들의 여성친화적인 시각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운영하지 않는 기관 사이에 보육시설의 운영이 관객의 관람만족도와 문화행사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생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육편의시설 운영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보육편의시설은 현재는 운영하지 않지만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과 느끼지 않는 기관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육편의시설의 운영여부는 이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관객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시에 시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특히 지역의 아이를 키우는 연령대의 여성들에게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 공연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추세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설치할 의향도 없는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이 관객의 만족도나 참여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으며 보육편의시설을 이용할 고객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이는 한편으로 그 기관의 위치나 성격상 실제로 아동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관객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관객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보육시설이 없는 공연장이 더 많기 때문에 관객들

이 보육시설의 존재를 모를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공연장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 보육편의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연시설에서 고객이 늘어나는데 따른 혜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보육편의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다.

현재 공연장에 보육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했듯이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정규 보육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공연시설 내의 보육편의시설과는 무관하다. 공연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보육편의시설은 공연장의 기관장이나 운영자들이 자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설치하였고(60%) 정부, 지자체의 시책을 통해서 설치된 비율(23.3%)은 낮다. 따라서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주거나 지도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시설 내에 보육편의시설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보육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연시설 운영자를 위한 보육편의시설 모델을 제시하고 또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요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V

보육편의시설 설치 · 운영방안

1. 보육편의시설 모델	63
2. 예산 조달 방법	72
3. 보육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78
4.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내용	81

공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보육편의시설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공연 여부와 관련 없이 일주일 내내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시간 동안 운영하는 상시 보육편의시설이 있고 공연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수시 보육편의시설이 있다. 또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돌보는 기능만 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곳도 있다. 특히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공연관람을 따라오는 아이들도 충실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또 한달 평균 2회 정도만의 공연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고 자기 시설의 성격과 규모, 상황에 가장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공연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편의시설의 유형과 현재는 없지만 개발 가능한 유형을 정리하여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공연시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육편의시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확보이므로 예산확보방안도 유형별로 제시한다. 또한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 즉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요조사, 그리고 설치를 한 후 예약시스템의 도입, 아동의 안전보장 방안, 그리고 홍보방안 등의 설치운영 매뉴얼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보육편의시설 설치의향은 있으나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설치하지 못하는 공연시설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1. 보육편의시설 모델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보육편의시설의 유형은 먼저 돌봄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놀이방 모델과 아동을 돌보면서 문화체험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는 운영시간에 따라 공연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수시 운영 모델과 공연과 관계없이 일주일 내내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거나 정해진 요일에 운영하는 상시 운영 모델이 있다. 따라서 운영 시간과 돌봄 내용을 결합하면 수시 놀이방 모델, 상시 놀이방 모델, 수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델, 상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4가지 기본 모델이 존재한다.

〈표 IV-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모델

모델	세부유형	설치 요건	연간 예산	필요 교사 수
놀이방 모델	수시	- 공연 횟수: 주 평균 2회(4시간)이상 - 이용 아동 수: 1회 평균 5명 이상	1,000만원 ~ 5,000만원	1~5명
	상시	- 공연 횟수: 월 30회 이상 - 공연 외 관람시설, 문화교육시설 있는 복합 문화시설	2,500만원 이상	2명 이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	수시	- 공연 횟수: 주 평균 2회 이상 - 이용 아동 수: 1회 최소 7~8명	2,000만원 이상	2명 이상
	상시	- 공연 횟수와 관계없이 구민(시민)회관 또는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시설로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사지원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곳	2,000만원 이상	2명 이상

가. 놀이방 모델

1) 수시 놀이방 모델

가) 운영방법

공연이 있을 때만 수시로 운영하는 모델로 아이를 돌보는 기능만을 가진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시설이 이러한 형태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소의 관리만으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공연이 있을 때마다 편의시설을 열 수 있기 위해서는 일 년 내내 이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연시설의 주 평균 공연회수 2회 이상, 한 번 이용 아동수가 5명 정도의 최소 조건이 필요하다.

나) 사례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는 지자체가 설립한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각각 2007년과 2004년에 개관한 이 공연시설들은 개관 시부터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해왔다. 이는 시설 자체의 결정사항으로 최근에 개관하는 공연시설은 보육편의시설의 설치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설들은 공연시설뿐만 아니라 전시공간과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편의시설 이용은 관람객에만 한정하고 있다. 드물게 공연예술인이 이용하기도 한다.

고양아람누리는 월 평균 35회 이상의 공연을 한다. 그러나 비수기인 1,2월, 월드컵 시즌 등은 유동적이다. 또 여름은 공연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편의시설 이용자가 적다. 보육편의시설은 일일 평균 4시간 정도 이용하며 수용인원은 최대 26명이다. 보육교사는 3명이 있다. 보육편의시설은 용역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주교사는 자격증 소지자이고 부교사는 자격증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한다. 짧은 공연일 경우에는 자유놀이를 하고 긴 공연일 경우에는 영상물 상영, 책읽기,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찰흙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편의시설 예산은 3천3백만 원 정도이다.

고양어울림누리도 운영주체, 보육편의시설 운영 결정, 시설의 성격에서 전자와 같다. 이곳은 월평균 30회 정도의 공연이 있다. 보육교사가 2명이 있다. 역시 용역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전자와 같은 교사구성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연 2천5백만 원 정도이다. 프로그램도 전자와 같다. 입장 가능한 아동의 연령은 4세에서 7세까지 이다. 4세는 자유놀이, 5세부터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표 IV-2〉 수시 놀이방 모델의 사례

시설명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운영주체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보유시설	공연장,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장,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횟수	월 평균 35회	월 평균 30회
운영시간	공연일 평균 4시간	공연일 평균 4시간
이용아동연령	4세-7세	4세-7세
교사	3명	2명
교사자격	주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부교사: 아르바이트 등	주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부교사: 아르바이트 등
인력채용 및 관리	용역회사 위탁	용역회사 위탁
프로그램	(짧은공연)자유놀이 (긴 공연)영상물상영, 책일기,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찰흙놀이	(4세) 자유놀이 (5세이상)영상물상영, 책일기,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찰흙놀이
연간소요예산	3천3백만원	

2) 상시 놀이방 모델

가) 운영방법

상시 놀이방 유형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상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연회수가 월 30회 이상은 되어야 하고 공연 외에도 관람시설이나 문화교육시설이 같이 있어 관람객이나 교육생을 보육편의시설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하고 야간공연을 고려하여 저녁 9시 정도까지 12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8-9시간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놀이방 크기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지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가 15명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40㎡이상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1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므로 운영시간에 따라 3-4명의 상시인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상시 놀이방 모델은 정식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상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형의 공연놀이방 시설보다 교사, 프로그램 등 여러 측면에서 규격구비가 요청되는 유형이다. 교사는 보육교사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육시간이 길어서 교사들은 교대업무를 하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주교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며 여러 아동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과 함께 아동의 위생상태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공연시설은 문화생활향유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커뮤니티센터로 자리매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연관람을 통한 이용고객의 문화향유뿐 아니라 아동이 미래 잠재문화고객으로 준비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공연놀이방 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앞으로는 신축되는 모든 복합문화시설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육편의시설이 포함되어 동선까지 고려되어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고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문화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보육편의시설은 공연관람객뿐 아니라 전시, 문화아카데미수강생, 시설방문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접근성 높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나) 사례

성남아트센터는 전형적인 상시 놀이방 유형의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공연자(3,176석)외에도 전시관과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다. 놀이방의 크기는 42㎡이고 최대수용인원은 15명이다. 아트센터의 월 공연회수는 30회 이상이다.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이다. 한 달 평균 이용 아동 수는 180명 정도이다. 교사는 4명으로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한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간식비를 합해서 연 27백만 원 정도이다. 월별 교육계획안을 마련하여 활동 위주의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년 전 부터는 전시 관람객과 문화센터 교육생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개관한 2005년부터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해 왔다. 성남시에서 설립한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표 IV-3〉 상시 놀이방 모델의 사례

시설명	성남아트센터
운영주체	성남문화재단
보유시설	공연장(3,176석),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횟수	월 평균 30회 이상
운영시간	2005년부터 매일 09:00-21:00(휴관일 제외)
이용아동연령	4세-7세(한달평균 이용아동 수: 180명 정도)
교사	4명
교사자격	주교사: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주말: 아르바이트생 활용
인력채용 및 관리	용역회사 위탁
프로그램	월별 교육계획(안)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연간소요예산	2천7백만원

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 혹은 가족의 문화향유기회를 늘리는 것을 일차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어머니 혹은 부모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보육편의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다소의 문화경험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문화향수에 있어서 어릴 적의 공연관람 기억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경험은 문화향수에 대한 태도나 문화향수 욕구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어른들이 공연을 관람할 때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짧은 체험에 불과할지라도 이들을 잠재적인 문화향수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보육편의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

다. 여기서 문화프로그램은 반드시 무거운 문화강좌일 필요는 없다. 물론 가벼운 음악, 미술 교육도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즐기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좋을 것이다.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편의시설 모델은 상시와 수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시는 공연이 있는 시간에만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되 그 때 문화강좌나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시는 공연이 있든 없든 정해진 시간에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자는 공연관람객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되 이를 아이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아이들의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로도 이용하자는 것이다.

1) 수시 형태

가) 운영방법

이는 앞의 수시 놀이방의 형태로 운영하되 여기에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유형도 일주일에 평균 공연회수가 최소 2회는 되어야한다. 또 이용 아동수가 한 번에 최소 7~8명은 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 1명이 되고 여기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전공 교사가 한명 더 필요하다. 혹은 문화전공자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여도 좋다. 문화 프로그램은 보육교사가 문화전공자일 경우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문화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한데 외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화예술인은 파견 받는 방법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센터 및 문화예술기반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센터와 문화의 집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이 결합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시설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아동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화예술강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사례: 국립국악원

앞의 모범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 놀이, 문화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편의시설에 오는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의 교사들은 문화전공자로서 다시 보육교사자격증을 받았다. 이들은 일 년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매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 부모들이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들은 전통 가락과 노래를 배우고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볼 기회를 가진다.

국립국악원의 공연회수는 성수기와 비수기(7~8월, 1~2월)에 따라 다르나 성수기에는 주 5회 이상 공연이 있으며 한 달 평균 아동 수는 120명 정도이다. 재원은 자체예산 이천만원 정도이다.

〈표 IV-4〉 수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사례

시설명	국립국악원
운영주체	국립국악원
보유시설	공연장(3,176석), 국악연수관, 야외놀이마당
공연횟수	성수기(7~8월, 1~2월) 기준 주 5회 이상
운영시간	매 공연시단 30분 전~공연종료시까지
이용아동연령	36개월이상~미취학아동(월 평균이용자수 120명)
교사	4명
교사자격	주교사: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보유자 주말: 아르바이트생 활용
인력채용 및 관리	용역회사 위탁
프로그램	월별교육계획에 의한 “유아국악놀이방프로그램” 운영(국악기체험, 전래놀이경험, 전래동요배우기 등)
연간소요예산	2천만원

2) 상시형태: 어린이 문화·보육 프로그램

구민(시민)회관 혹은 문예회관 중에는 공연회수가 한 달 몇 회에 불과한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서는 공연관객만을 바라보고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

기는 힘들다. 반면에 이런 공공시설을 지어놓았으면 충분히 이용을 해야 할 당위성도 존재한다. 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구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의 기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문화체험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2~3세에서 4~5세까지, 4~5세에서 6~7세까지, 그리고 6~7세에서 13세까지 등으로 분류하여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 아동들에게는 놀이방처럼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체험을 추가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한 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시 어린이 문화·보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연을 보러온 관객은 이 시설에 아이를 자유롭게 맞길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조달은 앞의 경우처럼 국립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를 파견 받으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큰 예산 없이도 어린이 문화·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3) 강사 수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강사지원사업과 연계방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연시설에 보육을 겸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강사를 구하는 것과 강사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05년부터 수행중인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강사 파견을 지원하는 학교지원사업과 보육원,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신청할 경우 강사파견을 지원하는 사회교육지원으로 나뉘어진다. 학교와 복지관에 7개 장르(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다지인) 중 원하는 장르를 신청할 경우 전문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강사료와 교육기자재를 포함하여 한 해 400억 규모의 사업이며 전액 국가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지원사업의 신청 가능한 대상시설에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을 포함시키고, 1기관 1명 파견, 1회 2시간, 연간 30회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내용을 보육편의시설에 맞도록 조정한다면

운영 수익이 크지 않거나 없는 공연시설에서도 양질의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사업대상시설을 확대시킬 경우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강사풀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것이며, 문화예술교육 시작연령대를 보다 어린 나이인 유아에게로 확장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전문예술인을 임명하여 1인이 1개 시설에 파견되어 연간 30회를 대상연령층에 맞추어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은 수시로 운영하거나 상시로 운영하거나 연간 좀 더 많은 회수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 또한 교육을 받을 아동들이 공연마다 바뀌고 유아들의 집중가능시간이 아동이나 어른보다 짧다는 점, 공연마다 공연시간이 다르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시운영형태에서는 1시설 1명 파견원칙이 아니라 동일인이 인근 시설 몇 곳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면,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에서도 예술강사파견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산 조달 방법

앞의 4가지 모델 유형은 예산의 조달방식에 따라 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유료형과 자체예산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후자의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민간시설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지자체에 속한 기관일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 관객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자체 예산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수시 놀이방 형태의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할 공간과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공연시설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서울 혹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방 혹은 군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설 설치비, 예산 확보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가. 유료형

현재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 공연시설은 국가에서 주는 공연시설 운영비용으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이고, 민간 공연시설인 경우도 자체 예산에서 이를 운영한다. 그런데 보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 공연시설이나 수익률이 좋지 않은 민간 공연시설은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설설치비나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확보 어려움 때문임을 고려할 때 보육편의시설 이용을 최소비용으로 유료화함으로써 많은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주 평균 공연시간이 2회(회당 2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8명이라면 5천원의 이용료를 받으면 1명의 보육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긴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시간 보육의 시간당 이용료가 2,400원임을 고려할 때 공연 전후를 포함해 2-3시간 정도의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5,000원은 합리적인 금액이다.

우리나라처럼 공연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많은 경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료는 2세 미만은 2,000엔, 2세 이상은 1,000엔 정도가 보통이다(표 IV-2). 드물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간사이필하모니오케스트라, <http://www.kansaiphil.jp/modules/news/index.php?page=article&storyid=32>). 또 특수한 경우 4시간에 3,800엔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http://kageki.hankyu.co.jp/faq/faq07.htm>).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연 일주일전 예약이 필수이다.

〈표 IV-5〉 일본 공연시설 보육료 안내(2010년 10월 기준)

극장명	내용
이온화장품 씨어터 BRAVA!	극단 카라멜 박스 25th 크리스마스 투어 「산타클로스가 노래해 주었다」 2010/10/31(일) 14: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caramelbox.com/ 택아요금: 2,000엔
우에노 학원 이사바시 기념관	요코야마 유키오 플레이 엘에 의한 쇼팽피아노 독주곡전곡 연주회 제1회 2010/10/17(일) 14: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ishibashimemorial.com/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극장명	내용
우에노 학원 이사바시 기념관	<고대 음악 월간2010> 사토 슌스케 바로크 바이올린 리사이틀 2010/10/29(월) 19: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ishibashimemorial.com/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이나기시립 i플라자	스즈키 케이강 소프라노 리사이틀 2010/10/09(토) 15: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iplaza.inagi.tokyo.jp/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이나기시립 i플라자	스즈키 히데미 J.S.바흐: 무반주 첼로 모듬곡 전곡 연주회(전2회공연,첫번째) 2010/10/16(토) 16: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iplaza.inagi.tokyo.jp/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왕자소극장	키코 qui-co. 「안의 눈과 은행의 마을」 2010/10/09(토) 19: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qui-co.net/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왕자소극장	싱크로 소녀 「성적 패배」 2010/10/16(토) 14: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synocro-jesse.cocolog-nitty.com/blog/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왕자소극장	체리 T기획 제22회 공연 「THE COBE [더 코브]」 2010/10/23(토) 14: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chari-t.com/pc/pc_top.html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왕자소극장	극단 형의 아이 제6회공연 「아버지」 2010/10/30(토) 14: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k2.dion.ne.jp/~kaeru.25/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오타구민 홀 아프리카	쇼팽 탄생 200해기념2 알려지지 않은 「쇼팽」 2010/10/16(토) 15: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ota-bunka.or.jp/ 택아요금: 일률 2,000엔
칸페티 탁아소	회장: 요츠야 와세다 학원 12:00-17:30 2010/10/09(토), 10/13(수), 10/23(토), 10/30(토) 자세한 것은 http://confetti-web.com/takuji/ 택아요금: 무료
국립극장	10월 가부키 공연 「에토말기의 연호 유형록」, 「장군 에도를 떠난다」 2010/10/03(일), 2010/10/27(수) 탁아 실시일: 월, 수, 토, 일, 금 12: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ntj.jac.go.jp/performance/3441.html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극장명	내용
국립 니이미술관	음영예찬-국립 미술관 컬렉션에 의한다/사후120해 고희전 이렇게 해 나는 고희가 되었다 2010/10/14(목) 12:30 15:00, 2010/10/17(일) 12:30 15:00 자세한 것은 http://www.nact.jp/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국립 능악당	만희극 패밀리 희극회 2010/10/31(일) 11: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yorozukyogen.jp/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아고라 극장	청년단 제63회 공연/청년단 국제 연극 교류 프로젝트 2010 「모래와 군인」 2010/10/03(일) 14: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seinendan.org/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아고라극장	KENTARO!!공연 「나는 또 오늘도 미완성의 음악으로 부른다」 2010/10/17(일) 16:00개막 2010/10/24(일) 16:00개막 자세한 것은 http://www.kentarock.com/ 택아요금: 0-1세 2,000엔, 2세 이상 1,000엔

자료: <http://www.mothers-inc.co.jp/framesche.html>

단, 보육편의시설 운영은 무료로 하더라도 설치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평균 공연 횟수가 2회 이상인 공연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자체 예산 사용형

1) 운영방법

규모가 크고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민영 공공시설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보육편의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 실상 보육편의시설의 운영비는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보육교사 두 명을 고용할 경우 한 회 공연 당 5만 원 정도의 인건비 예산이 필요하므로 일주일에 6회 정도의 공연이 있다고 해도 천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하다. 간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2) 사례: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특수법인으로서 민영 공연시설에 속한다. 예술의 전당은 가장 운영이 활발한 공연시설 중의 하나로 음악당 2개 홀, 오페라 하우스 3개, 야외음악당 등에서 진행하는 공연이 매일 최소한 2회이다. 또한 장기공연도 많다. 1996년 개관 때부터 “어린이 나라”로 불리는 놀이방을 운영하여 왔다. 놀이방의 크기는 180㎡ 정도로 4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놀이방에 아동이 오지 않는 날은 없고 적은 날은 4~5명이지만 평균 12~13명이다.

보육교사는 5명이 근무하는데 주교사 2명은 보육교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머지 아르바이트 3명은 유아교육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들이다. 한 번에 3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본다. 예산은 홈페이지에 놀이방을 홍보하고 있으며 공연티켓을 소지한 사람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예약제이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오는 경우에도 자리만 있으면 받아준다.

다. 전액 국가보조형

서울이나 몇몇 대도시와는 달리 지방의 대부분 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에서는 관객의 보육편의시설 이용비 지불의사가 없을 수 있어 유료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공연회수가 많거나, 공연의 주 관객층이 30대 여성이라든가, 공연시설이 외진 곳에 위치할 경우 보육편의시설이 필수적이어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모두 지원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시설에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라. 자원봉사자 활용형

1) 운영방법

공연 횟수가 많은 대도시에 소재한 공연시설보다 공연 횟수가 많지 않은 소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이다. 공연 횟수가 한 달 2~3회 내외이고 맡기는 아동수도 5인 미만인 곳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단,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공연시설 담당자는 필요한 수만큼의 자원봉사자를 확보, 유지, 관리하는 업무수행이 요청된다. 또한 자원봉사활

동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봉사시간에 비례하여 공연티켓 초대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봉사활동시간 만큼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른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개개인이 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도 봉사활동의 동기가 되지만, 보육편의시설 운영은 1회성 행사가 아니므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자의 수급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지역보육교사협회, 혹은 지역여성단체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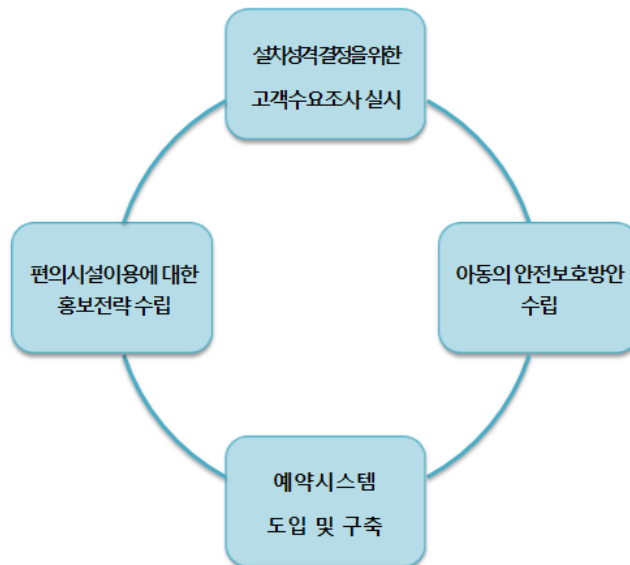
2) 사례

거제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1,636석)과 전시관, 문화센터를 갖춘 복합문화시설이지만 공연회수는 한 달에 1~2회, 연 24회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육편의시설은 회관이 문을 연 2003년부터 운영해왔지만 이용 아동 수는 한 달 평균 2~3명, 많을 때도 7~8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히 보육교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운영하였다. 자원봉사자 8명이 한 조가 되어 공연이 있는 날 관람표를 수거하고 공연장 안내를 하며 아동이 있는 경우 돌보아 준다. 아동 수에 따라 자원봉사자 투입수가 다르지만 보통은 한두 명이 담당한다.

그러나 3년 전 부터는 자원봉사자를 아르바이트직으로 전환하였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통솔이 잘 안되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인력은 일회 2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한다. 기존의 자원봉사자 중에 아르바이트로 전환한 사람도 많으나 연령대가 약간 젊어졌다. 이들은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갔다고 한다. 2003년도 설립당시에 공간만 있는 상태여서 칸막이, 냉난방, 장비 등 장비구비에 1천만 원, 내부에 놀이기구, 책상, 책 등 구입에 1천만 원이 들어가서 초기시설비 총 2천만 원이 들었으며, 인건비는 해마다 5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안전문제는 시설전체가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므로 문제발생시 보상범위에 관객이 포함된다.

3. 보육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앞 장에서는 공연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육편의시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각 공연시설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보육편의시설 유형이 파악되면 다음 단계로 시설 설치를 위한 기관의 의사결정 및 예산확보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관의 의사결정구조 등이 각 기관마다 달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들은 다음과 같다(<그림 IV-1>).



[그림 IV-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의사결정을 위한 고객수요조사

209개 공연문화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한 30개소의 운영계기를 보면, 지자체의 의사결정이 18개소(60.0%),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 7개소(23.3%), 관객의 요구 3개소(10.0%), 기타(6.7%)로 관객의 요구보다는 지자체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계기임을 보여준다. 조사항목에서는 분리되

어 있지만 시설자체의 의사결정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연시설 업무담당자의 고객친화적인 감수성, 즉 고객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추세이어서 많은 공연시설에서는 보육편의시설설치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며 특히 새로 개관하는 공연시설에서는 설게 시부터 이점을 고려하는 편이다. 그러나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내부에서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객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먼저 시설담당자의 고객 규모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람시설인 경우에는 이용객이 관람객에 한정되겠지만, 문화복합시설인 경우 관람객만을 이용객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추세에 맞춰 문화복합시설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설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후 시설 성격에 맞는 보육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의 고객 분석 및 고객들의 시설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제시할 경우 예산확보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민간기관에서도 고객의 요구가 확실히 드러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홍보전략

일단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홈페이지나 관람표에 보육편의시설의 존재를 널리 홍보하는 것이 시설의 원만한 운영에 필수적이다. 공연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가장 많은 이유로 아동수 부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생각해 보면 이는 일종의 악순환으로 먼저 공연시설 내에 보육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고, 데리고 오지 않으므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단 보육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수요를

창조할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이용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성격을 잘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은 일반 보육시설과는 달리 안전한 돌봄 기능만을 제공하며 연령도 3세~7세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호 안전과 편리를 위해 정해진 돌봄 연령대를 벗어나는 아동은 동반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다. 예약시스템 도입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홈페이지에 보육편의시설이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다.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게 하거나 전화 등 공연 예매 시에 예약을 한다면 시설 측이나 아동 측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게 단순 돌봄이 아니라 공연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수와 연령대 파악이 가능하여 연령대와 인원수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아동 수에 필요한 교사수도 결정이 되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시행착오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라. 아동의 안전

아동의 안전은 보육편의시설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은 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보육시설이 아니라 안전관련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놀이방을 만들 때에도 보육편의시설을 만들 때 고려하는 안전점검원칙을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05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보호). 또 최소한의 구급약품을 갖추어 놓아야 하고 사고시 보호자에게 즉각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 역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선은 시설은 화재보험은 들어가 있으므로 시설에서 큰 일이 발생할 경우 화재 등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아이 혼자 혹은 아이들 간에 상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약한 부모의 아이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다. 예산은 보육시설안전공제회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내용

공연예술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2008년 중앙정부와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예산은 약 3조4천억 원이며 이 중 공연예술 예산은 약 9천억이다. 9천억 중 중앙정부에서 2,012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7,087억 원을 지원하였다. 중앙 정부 공연예산의 46%(약 926억 원)은 국립공연시설 운영예산이고 이 밖에 공연시설 건립예산 16.6%, 공연예술활동 및 축제 지원 11.2%, 국립공연단체 운영예산이 7.4%, 그리고 나머지 18.8%가 기타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예산 약 7천억 중 공공 공연시설 운영예산이 37.3%, 공연단체 운영예산이 28.2%, 공연예술 활동 및 축제지원 예산이 11.5%이다. 공연시설 927개 중 과반수가 넘는 485개(52.3%)가 공공기관이다.

이처럼 공연예술 시설과 단체 운영에는 국가의 보조가 중요하다. 보육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보육편의시설의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보육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많은 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할 근거는 국민의 문화향수 보장, 저출산 해결 및 아동의 문화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서론에서 논한 대로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육아기 여성과 가족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문화향수에 장애가 되는 것이 출산을 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문화향수처럼 여성이 선호하고 욕구가 높은 여러 활동들을 단념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출산과 육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이 부모를 따라서 공연장에 오면 아이들도 문화

에 노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놀이방에서 공연예술전문가에 의한 짧은 공연이나 교육을 하든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문화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으면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문화에 노출되는 평생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정부의 문화예산 중에 공연시설 보육편의시설 지원비를 포함하는 것의 명분을 높여준다.

다음은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다.

가. 보육편의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 조성

국가가 공연장의 보육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시설을 규정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은 영유아보육법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2015’ (직장 보육시설의 층수 제한 완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규정에서 다루는 것은 정규 보육시설이고 공연장 내의 보육편의시설은 정규 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연장의 보육편의시설은 공연관련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연법(1999.2 제정)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보육편의시설의 지원도 공연시설의 활성화나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보육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항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보육편의시설 지원은 예산지원에서 보육교사지원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은 광범위하게 공연장 보육편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3조 3항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과 공연장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한다.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과 공연장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문화교육시설과 같이 운영되는 복합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한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조항 ④)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 지원

국가예산이 모든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시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관객이 느끼는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일정 정도의 예산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 모든 공연시설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설의 유형과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성격, 공연 회수, 관객 수 등에 따라 선택 혹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예산지원의 원칙이다.

- 1)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 2) 보육편의시설 설치 공간이 있고 공연 횟수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한다.
- 3) 사설기관인 경우 기관 자체에서 국가 지원예산에 상응하는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4) 시설 규모에 따라서보다는 시설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한다. 즉, 아동을 동반할 만한 젊은 여성들이나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외진 곳에 있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도 우선 지원한다.
- 5) 공공기관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관객층이 두꺼운 곳은 부분 유료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6) 시설설치비 지원은 잠재관객층이 두터운 곳을 우선으로 한다.
- 7)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공연회수가 일주일에 몇 회는 되는 곳에 한정하고 한 달에 5회 이하인 곳은 인건비보다는 보육교사 파견을 지원한다.

다. 보육교사 및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이 상시적으로 있지

않는 시설의 경우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일을 위해 보육교사를 찾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육교사 자체를 파견 등이 필요하다.

- 문화자원봉사자 활용: 문화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육편의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확보한 후 필요한 곳에 파견할 수 있다. 동시에 국립국악원의 사례처럼 공연예술인이 공연시설의 공연 내용에 맞는 문화강좌를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연인 풀을 만드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 전문예술강사 활용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¹⁾의 전문예술강사를 활용하여 보육편의시설의 아동들에게 예술 관련 강좌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파견함으로써 프로그램 지원도 할 수 있다. 현재 전액 국가예산 지원사업인 예술강사지원사업 중 사회교육지원대상시설에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을 포함시키고 또 대상시설 및 대상아동 특성에 맞도록 지원내용도 완화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공연시설에서 잠재고객층인 유아들에게 시설에서 제공해줄 만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열릴 것이다. 지원대상시설에서 사회교육지원대상에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을 포함시키고, 문화프로그램 상시 운영 보육편의시설을 위해서는 현재 1기관 1인 파견, 1일 2시간, 연간 30회 기준 중 회수를 상향조정하고 공연 때만 운영하는 수시운영시설유형에서는 1인 1기관 파견을 1인 몇 개 인근기관으로 완화시키고, 교육 대상도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속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단위프로그램 중심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라. 교육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공연시설 관계자대상 교육에 “고객친화적 마인드

1)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군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다문화 가정 등에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 사회계층간 문화적 불평등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교육”을 포함시키고 이 일환으로 보육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보육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는 거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관장들의 모임에서 보육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의 사례를 소개하고 보육편의시설 설치, 운영을 격려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09). 「2009 공연예술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09). 「2009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 서울특별시(2005). 「보육시설 운영매뉴얼 및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2010). 「2009 아동·청소년 백서」.
- 이수연 외(2005). 「한국 여성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행수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문화관광부.

인터넷 사이트

-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 세종문화회관 <http://www.sejongpac.or.kr/>
- 예술의전당 <http://www.sac.or.kr/>
- <http://www.mothers-inc.co.jp/framesche.html>



부 록

〈부록 1〉 설문지	91
〈부록 2〉 공연법	97

<부록 1> 설문지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현황 조사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가족친화적 공연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연시설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셔서 한 문항도 빠지기 않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 7월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조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설문 후에는 아래 팩스번호로 설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담당자: 조은미 Tel: 02-3156-7160 / Fax: 02-3156-7276

E-mail: jem1030@kwdi.re.kr

시설명		설립년도	
주소			
설립주체명		설립주체유형	
운영주체명		운영주체유형	
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		FAX	

● 설립 및 운영주체 유형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광역) 3. 지방자치단체(기초) 4. 공기업 5. 재단법인
6. 사단법인 7. 상법인 8. 교육기관 9. 개인 10. 기타

Q1. 귀 시설에서는 관객이나 공연예술인의 편의를 위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보육편의시설:** 어린이 놀이방 등 관객 및 공연예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연관람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예: 어린이 놀이방 등)

- ① 그렇다 ☞ p.2의 PART A로 ② 아니다 ☞ p.4의 PART B로

PART A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시설만 응답해 주십시오.

A1. 귀 시설의 보육편의시설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_____년도

A2. 귀 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② 시설 자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③ 관객의 요구로 인해
 ④ 공연예술인들의 요구로 인해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A3. 귀 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이용대상자는 누구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공연 관객
 ② 공연예술인
 ③ 문화시설 이용자(수강생 등)
 ④ 기타:_____

A4. 귀 시설의 보육편의시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상시 ☞ A4-1.로
 ② 수시:_____ (공연이 있을 때 등 구체적으로 기입) ☞ A4-3.으로
 ③ 기타:_____

A4-1. 일주일에 몇 일 운영하십니까? ____요일~____요일 까지 총____일

A4-2. 1일 몇 시간 운영하십니까? 오전____시 부터~오후____시 까지 총____시간

A4-3.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운영하십니까? 평균_____시간

A5. 한 달 평균 이용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_____명

A6. 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실(놀이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_____개

A7. 보육편의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A7-1. 보육교사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정규직 _____명 ② 계약직 _____명 ③ 임시직 _____명
④ 파견직(용역) _____명 ⑤ 아르바이트 _____명 ⑥ 기타 _____명

A7-2. 보육교사의 임금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월급 ② 주급 ③ 일급 ④ 시간급 ⑤ 기타

A8. 보육편의시설의 총 면적은? _____㎡ (_____평)

A9. 보육편의시설의 최대수용가능 인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A10. 보육편의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의 재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운영비 총액	분류	금액	비중
천원	① 자체예산	천원	%
	② 공공지원금	천원	%
	③ 기부·후원금	천원	%

A11. 보육편의시설 이용료가 있습니까?

- ① 무료
② 시간당_____원
③ 기타:_____

A12. 보육편의시설 이용 아동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_____세 부터~_____세 까지

A13. 보육편의시설의 운영방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돌보는 기능만 제공한다.
- ② 교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한다.
- ③ 기타: _____

A14.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관객들의 관람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②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A15. 보육편의시설 운영이 귀 시설의 문화행사참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②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PART B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연시설만 응답해 주십시오.

B1. 귀 시설 내 관객이나 공연예술인을 위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B1-1.로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B1-1.로
- ③ 약간 그렇다 ☞B2.로
- ④ 매우 그렇다 ☞B2.로
- ⑤ 잘 모르겠다 ☞B2.로

B1-1. 귀 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간 확보 등의 물리적인 문제
- ② 재원 확보 등의 경제적인 문제
- ③ 보육교사 등 인력의 문제
- ④ 이용 아동 수 부족 문제
- ⑤ 보호시간동안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
- ⑥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문제
- ⑦ 기타:_____

B2. 귀 시설에서는 향후 관객이나 공연예술인을 위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B2-1.로
- ② 없다 ☞B3.으로

B2-1. 귀 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시설 내 여유 공간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현재는 없지만 확보가능하다

B2-2. 귀 시설의 공연현황을 감안하신다면 보육편의시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공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운영
- ② 공연이 있을 때 마다 운영
- ③ 기타:_____

B2-3. 귀 시설에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에 가장 바라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설치비 지원
- ②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③ 기타 운영비 지원
- ④ 운영프로그램 지원
- ⑤ 기타:_____

B3. 귀 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한다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간 확보 등의 물리적인 문제
- ② 자원 확보 등의 경제적인 문제
- ③ 보육교사 등 인력의 문제
- ④ 이용 아동 수 부족 문제
- ⑤ 보호시간동안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
- ⑥ 보육편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문제
- ⑦ 기타:_____

B4. 귀 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한다면, 관객들의 관람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②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B5. 귀 시설에서 보육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귀 시설의 문화행사참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②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❶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❶

보내주실 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 은 미
Fax	02) 3156 - 7276
E-mail	jem1030@kwdi.re.kr

<부록 2> 공연법

공연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111호, 2010. 3.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2-3704-95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6, 2006.9.27>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01.12.31>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공연

제4조 삭제 <2002.1.26>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06.9.27>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6.4.28, 2006.9.27>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

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12.31>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③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1.12.31>

제3장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공공연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④ 삭제 <2001.12.31>

⑤ 삭제 <2001.12.31>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 삭제 <2006.9.27>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12.31]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용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6.9.27, 2007.4.1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1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③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31]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①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1.5.24>

제17조 삭제 <2001.5.24>

제18조 삭제 <2001.5.24>

제19조 삭제 <2001.5.24>

제20조 삭제 <2001.5.24>

제21조 삭제 <2001.5.24>

제22조 삭제 <2001.5.24>

제23조 삭제 <2001.5.24>

제24조 삭제 <2001.5.24>

제25조 삭제 <2001.5.24>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2001.5.24>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삭제 <2001.5.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사항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32조(폐기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폐쇄조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삭제
 2.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③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휴대)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 조치

[전문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1.5.24>

제38조 삭제 <2001.5.24>

제39조(수수료) ①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정기·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

제42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9.2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1. 삭제 <2002.1.26>
 2.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9.27>

1. 삭제 <2006.9.27>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9.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9.27>

⑦제5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9.27>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제10111호, 2010. 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Making Women-Friendly Cultural Facilities: How to Establish and Run Childcare Service in the Performance Facilities

Soo-Yeon Lee
In-Soon Kim
Ji-Young Park

Providing childcare service is one of the ways to make the cultural facilities such as the performance center women-friendly. Many women who raise pre-schoolers are prohibited from going to the performance facilities and lose chance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This study aims at making cultural centers women-friendly by providing measures to establish and run childcare service in the performance facilities.

This study utilizes research methods of survey and interviews. We sent questionnaires to 732 cultural facilities nationwide to investigate their situation of childcare service in case they provide it and obstacles to the service in case they don't. Out of 209 performance

facilities which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ly 14.4%(30) provide childcare service. Out of 179 performance facilities without childcare, 50 have intention to establish it. Forty of them feel the necessity to run childcare center, however they are kept from running it due to either lack of space, financial expense or difficulty in securing teachers.

The expense of running childcare center can be secured as follows:

1. by charging the service fee 2. by utilizing its own budget 3. by acquiring the government assistance and 4. by relying on volunteer workers.

1. The paid childcare service is possible by offering on average 8 performances monthly and charging 5,000 won for each service and securing a minimum of 8 children each time.
2. The profitable performance facility can rely on its own budget for childcare expense. Six performances per week requires about 20 million Won's annual budget for teachers' salary.
3. The performance facility which cannot afford running childcare with its own budget can rely on the government subsidy for childcare. This facility should be able to provide rationals for the subsidy, however. For example, the facility located outside Seoul may find it difficult to persuade the audience to pay for childcare service even though the core audience have preschoolers.
4. The cultural facilities located in a remote area should provide childcare service even though they have very few performances. They can utilize volunteers as childminders.

The cultural facilities can procure teachers utiliz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program of dispatching professional art teachers to social education institutes. For th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s to qualify the performance facilities as a candidate for the art teacher dispatch program.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2010년 9월 28일 인쇄

201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350-9 93330

<정가 8,500원>